

경남고성지역 청동기시대문화와 고자미동국(古資彌凍國) 태동(胎動)

심 봉 근*

<목 차>

- I. 머리말
- II. 청동기시대유적과 유구
- III. 청동기시대 전말(顛末)과 고자미동국 태동
- IV. 끝맺는 말

국문요약

고성은 삼한시대 고자미동국의 중심지이며 그 태동기 문화는 고성지역 청동기 시대 후기와 삼한시대 초기의 고고학 자료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다. 그리고 태동기는 시기적으로 기원전 300년경 전후로 추정된다. 청동기시대 문화는 송국리형 주거지 단계의 주거지, 지식묘, 환호, 마제석기 등이 주목되며 무선리와 울대리 주거지와 환호, 함께 출토된 무문토기와 삼각형석도는 후기후반 자료로 평가된다. 석관묘는 고성에서 이른 시기에 해당되는 묘제 중의 하나로서 가장 선행하는 문화요소이고 마제석검은 청동기시대 해석에 도움이 되는 자료이지만 전세기간이나 재생해서 사용하는 경우 절대연대 추정에 장애가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삼한시대 초창기를 대표하는 유물은 한국식동검과 다뉴경, 원형점토대구연토기, 흑색장경호 등이다. 고성에서는 고성읍 성내리와 송학리 수혈에서 삼각형점토대토기와 함께 일본에서 중기로 편년하는 야요이식토기기가 출토되어 원형점토대토기 보다는 한 단계 늦은 시기의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고성에서는 고자미동국 초창기에 해당하는 원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되는 유적이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이 하나의 극복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의 자료 증가를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 청동기시대 무선리의 송국리 단계와 삼한시

* 동아시아문화연구소 소장

대 성내리 삼각형점토대구연토기 사이에는 원형점토대토기 존속기간 정도의 일정 공백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접한 사천 방지리에서는 원형점토대토기 단계, 원형점토대와 삼각형점토대토기 중복단계 그리고 삼각형점토대구연토기 단계로 시기 구분이 가능한 복합생활유적이 최근 발견되었다. 고자미동국의 태동기에도 방지리유적과 마찬가지로 단계를 거친 해당유적이 위치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심지도 청동기시대 울대리에서 삼한시대에는 성내리나 송학리가 있는 현재의 고성읍내로 옮긴 것으로 짐작된다. 하이면 석지리 출토 동검과 하이면 송천리 솔섬 석관묘와 철검, 무문토기, 회백색 연질 주머니호는 삼한시대 전기에 외곽 지역에도 청동기시대에 이어서 재지주민들이 정착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자료이다. 그리고 고성읍 동외동패총에서 수습된 청동기와 토기 등 국제성을 가진 유물은 신문화 충격에 대한 흡수나 기온변화에 따른 재지주민들의 대응책을 반영한 결과물로 해석된다.

주제어 : 고자미동국, 원형점토대토기, 삼각형점토대토기, 야요이토기, 주머니호

I. 머리말

고성은 삼국지에 고자미동국¹⁾, 삼국사기에 고사포(古史浦)²⁾, 삼국유사에는 소가야가 위치했던 곳으로 전해지고 있다.³⁾ 이를 뒷받침하는 고고학적 자료는 고성읍 주변에 분포하는 패총, 주거지, 고분 등 생활유적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유추가 가능하다. 그 동안 삼한시대 고자미동국 등 변진지역 소국의 성립배경을 연구하는 경우 한국식동검이나 초기철기 출현 등 고고학적 자료로 자주 이용하여 왔다.⁴⁾ 특히 경상도지역의 경우 한국식동검문화가 집중하는 경주, 대구, 영천, 김해지역이 주로 검토대상이 되었다. 고성의 경우 한국식동검은 하이먼 석지리에서 수습된 것이 유일한 예이고⁵⁾ 하일면 송천리 석관묘⁶⁾, 고성읍 동외동패총⁷⁾, 성내리 유적⁸⁾, 송학리유적⁹⁾ 등에서 출토된 철기와 무문토기 등이 고자미동국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동외동 패총의 경우 청동광봉모(靑銅廣鋒鉢)를 비롯해서 검병(劍柄), 검과두식(劍把頭飾), 수대경(獸帶鏡片) 등 청동유물¹⁰⁾과 그 바닥에서 확인된 제철관계 유구는 고자미동국을 이해하는 중요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삼한시대의 시작을 대부분 한국식동검 중 가장 고식으로 편년하는 대전 괴정동유적 출토 일괄유물¹¹⁾을 표지(標識)로 B.C.4세기말 그리고 마지막 단계를 A.D. 3세기로 예상하고 있다. 그것은 연(燕) 소왕(昭王) 때 진개(秦開)장

1) 『三國志』魏書 東夷傳 韓條에 「…有己柢國 不斯國 弁辰彌離彌東國 弁辰接塗國 勤耆國 難彌離彌東國 弁辰古資彌東國 弁辰古淳是國 冉奚國 弁辰半路國 弁辰樂奴國 軍彌國 弁辰彌烏邪馬國 如湛國 弁辰甘路國 戶路國 州鮮國 馬延國 弁辰狗邪國 弁辰走漕馬國 弁辰安邪國 弁辰瀆盧國 斯盧國 優中國 弁辰韓 合二十四國」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2) 『三國史記』卷四十八 列傳八 勿稽子傳에 「勿稽子 奈解尼師今時人也 …時浦上八國同謀伐阿羅國 阿羅使來請救 尼師今使王孫孫音率近郡及六部軍往救 遂敗八國兵… 後三年骨浦 柒浦 古史浦三國人來攻竭火城 王率兵出救 大敗三國之師」라 한다.

3) 『三國遺事』卷五 遯隱八 勿稽子條에 「第十奈解王即位十七年壬辰 保羅國 古自國(今固城) 史勿國(今泗州) 等八國 併力來侵邊境 王命太子孫音 將軍一伐等 率兵拒之 八國皆降…」이라 하고 있다.

4) 李賢惠 『三韓社會形成過程研究』一潮閣, 1984. pp.11-31.

5) 沈奉謹 『東亞大學校博物館所藏靑銅遺物新例』 『古文化』제20집. 한국대학박물관협회. 1982. pp.39-49.

6) 金東鎬 『固城松川里술섭石棺墓』동아대학교박물관. 1977.

7) 金東鎬 『固城東外洞貝塚』동아대학교박물관. 1984.

8) 沈奉謹 『固城邑城址』동아대학교박물관. 2006. pp.55-71.

9) 한계레문화재연구원 『固城松鶴里309-1番地遺蹟』 학술조사보고서 제16책. 2012. pp.17-24.

10) 沈奉謹 『固城東外洞貝塚出土彌生系遺物』 『石堂論叢』제27집. 동아대학교석당학술원. 1998. pp.5-15.

11) 李殷昌 『大田市槐亭洞出土一括遺物調査略報』 『考古美術』8-9. 1967. pp.330-333.

군의 남하 기사¹²⁾와 삼국지의 편찬시기 등 문헌자료를 참고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한국식동검 가운데 철기를 동반하지 않은 원형점토대토기 단계는 청동기 시대로 편년하는 연구자도 없지 않다.¹³⁾ 이는 곧 청동기시대 종말과 철기시대 시작을 의미하는 전환기에 대한 인식 차이라고도 볼 수 있다. 사실 한국식동검 초기 유적에서는 철기 등장 시기가 약 1세기 정도 늦게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 철기시대 초기에는 한국식동검을 중심한 청동기가 오히려 철기보다 양적으로 우세한 철기가 없는 시기가 일정기간 존재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철기시대에 대한 개념을 더욱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즉, 청동기시대 초기에도 철기시대와 마찬가지로 무문토기, 마제석기를 사용하면서 청동기는 한동안 확인되지 않는 청동기가 없는 시기가 존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주목할 것은 청동기시대 말기에는 일반생활도구인 마제석부류와 석도류, 그리고 마제석검, 석촉 등 무기류가 급감하고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철기가 석기를 대신해서 새롭게 등장한 소치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철기의 등장이 곧 삼한시대 시작이라는 등식이 이론적으로 성립 가능하다면 청동기시대는 삼한시대와 교환되고, 변진 고자미동국은 철기시대에 해당하는 셈이 된다.

다만 고자미동국과 같은 삼한 소국들의 성립 배경이 청동기시대 재지주민들의 새로운 문화접촉에 기인한 결과인지 아니면 준왕(準王)¹⁴⁾ 또는 위만(衛滿)¹⁵⁾의 남침기사와 같은 문헌상에 나타나는 동북아시아지역의 긴박했던 정세에 의한 주민 이동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자세하지 않다. 그러나 고성지역에서는 고자미동국 이전단계인 청동기시대에 이미 지식묘 또는 석관묘를 사용하고 송국리형 주거지에서 생활하던 재지주민들이 군내전역에 걸쳐 넓게 분포했던 것만은 분명한 사실로 이해된다. 여기서 주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청동기시대에서 삼한시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긴 과도기 문화에 대한 고고학적 실체 파악이다. 이것은 곧 청동기시대 재지주민들과 삼한시대 고자미동국 주민간의 정체성과도

12) 三國志 韓傳 魏略逸文에 “魏略曰 昔箕子之後朝鮮候 見周衰 燕自存爲王欲東略地 朝鮮候 亦自稱爲王 欲興兵逆擊燕 以尊周室 其大夫禮諫之 乃止 使禮西說燕 以止之不攻 後子孫稍驕虐 燕乃遣將秦開 攻其西方 取地二千餘里 至滿潘汗爲界 朝鮮遂弱…”이라 하고 있다. 즉 燕 昭王 (B.C.312-B.C.279) 때 진개장군이 서방 2000여리를 점령하여 만반한을 경계를 삼았다는 기사 중 만반한은 명도전과 한국식동검의 분포상태를 참고해서 청천강으로, 그리고 그 시기를 대략 기원전 300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13) 朴榮九 「東海岸地域 青銅器時代 聚落 研究」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pp.63-71.

14) 李丙燾 「三韓問題의 新考察(二)」 『震檀學報』3. 1935. p.100.

15) 千寬宇 「三韓의 成立過程」 『史學研究』26. 1976. pp.40-42.

관계되는 일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과제 해결을 위해 고성지역 청동기시대 전반적인 문화양상을 먼저 살펴본 다음 그 가운데 후기 또는 말기의 문화내용과 기존의 확인된 고자미동국의 고고학적 자료를 비교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연속성 여부를 파악하는 순서로 고자미동국 태동기의 문화양상을 확인하기로 하겠다. 선학동배들의 아낌없는 질정을 기대한다.

II. 중요유적과 유구

1. 주거지

지금까지 알려진 고성군내 청동기시대 유적과 유물은 유물 산포지를 비롯해서 입석¹⁶⁾, 주거지와 지석묘, 석관묘, 환호, 무문토기, 마제석검, 마제석촉, 유구 석부 등이다.

그 가운데 주거지는 지표조사과정에서 확인된 하이면 석지리유적과 구만면 효나리유적이 있으며¹⁷⁾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적은 상리면 무선리유적과 거류면 신용리유적이 있고 최근 고성읍 울대리에서도 수혈식 주거지가 발견되어 주목하고 있다.

1) 상리(上里) 무선리(武仙里)유적¹⁸⁾

무선리유적은 2002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고성-자은간 도로 확포장공사 중 상리면 무선리 575-23번지 일대에서 발굴조사 된 유적이다. 조사 과정에서 청동기시대 수혈식 주거지 4기와 용도미상의 수혈 5기가 각각 확인되고 그 내부에서 무문토기와 석기 등 청동기시대 유물 일부가 수습되었다.

그 중 1호 주거지는 평면 원형으로 바닥 중앙에 타원형 수혈과 그 주위에 주혈을 배치하는 형태의 전형적인 송국리형이다. 크기는 직경 560cm, 잔존깊이 26cm정도이다. 다시 말하면 주거지는 바닥 중앙에 타원형 수혈을 두고 그 주위에 일정 간격으로 柱穴 4주를 사방에 배치한 4주식 건물지이다. 유물은 무문토기, 석기 등이 중앙의 타원형 수혈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흩어진 상태로 놓여 있었다. 주목되는 것은 수혈 외곽 동쪽에 3주, 서쪽에 2주의 목주흔(木柱痕)이

16) 固城郡·東亞大學校博物館 『文化遺蹟分布地圖 - 固城郡-』2004.

17) 固城郡·東亞大學校博物館 『文化遺蹟分布地圖 - 固城郡-』2004.

18) 慶南文化財研究院 『固城武仙里遺蹟』學術調查研究叢書 第39輯 2005.

확인된 점이다. 내부의 4주는 지붕을 가구(架構)하기 위한 주혈로 생각되지만 외곽 주혈은 용도 확인이 어려운 것이다. 지붕 보강을 위한 장치이거나 아니면 출입구 시설과 관계되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자세하지 않다. 내부에서 수습된 유물 가운데 무문토기는 옹형(甕形)과 발형(鉢形)으로 구분되는데 대부분 발형에 해당하는 것이다. 태토는 조질의 점토에 장식과 석립이 혼입된 전형적인 적갈색 무문토기이며 직립구연에 평저부를 가진 것이다. 석기는 5점이 수습되었다. 점판암제의 부리형 석기 2점과 미완성품 3점이다. 이 부리형 석기는 진주 대평리 어은2지구와 옥방 7지구, 9지구 등 남강유역 청동기시대 송국리형 주거지유적을 중심으로 최근 많이 발견되고 있어 주목하고 있다.¹⁹⁾

다음 2호 주거지는 부분적으로 훼손되었다. 그러나 바닥 중앙에 위치한 타원형 수혈과 그 주위에 4주식 주혈이 배치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주거지도 송국리형이 분명해 보인다. 평면 타원형으로 직경 607cm, 잔존깊이 25cm 크기이다. 유구 내부에서 삼각형 석도편과 무문토기 저부편이 수습되었다. 그 중 무문토기 저부는 평저이고 적갈색 粗質의 것으로 전기한 1호 주거지에서 수습된 발형토기와 동일 특성의 것이다. 삼각형 석도는 남쪽 벽면 근처에서 수습되었다. 점판암제로 전·후면과 배면(背面)에 마연흔이 뚜렷하다. 배부와 인부(刃部)는 직선이며 교인(交刃)으로 편인(片刃) 몸체에 끈을 매달기 위한 구멍이 양쪽에 있는데 천공(穿孔)은 양쪽에서 행해졌다. 그리고 구멍 상단에 직선상의 홈이 한줄 있는데 전·후면이 동일하다. 잔존길이 7.3cm 폭 4.3cm 두께 0.6cm이다.

3호 주거지도 평면 원형이며 부분적으로 훼손되었다. 바닥 중앙에 타원형 수혈이 있고 그 주위에 13주의 주혈이 배치되어 있다. 대부분의 주혈은 정형성이 인정되지만 일부는 무질서하게 배치되어 용도 판단이 어렵다. 내부 칸막이 시설이나 기존 목주의 보강을 위한 장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직경 375cm, 잔존깊이 12cm의 송국리형에 해당하는 것이다. 내부에서 단도마연토기 저부편과 무문토기편 3점이 수습되었다. 당시 수습된 무문토기편은 모두 태토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고 기벽이 얇으며 내벽은 회색, 외벽은 단도마연 또는 적갈색을 띤 특징을 가진 것이다. 자세하지 않지만 동일체분이 파손된 것으로 추측된다. 남강유역에서 청동기시대 후기에 유행하는 홍도 또는 단도마연토기와 흡사한 특징의 것이다.

4호 주거지는 평면 말각형으로 잔존 최대경 386cm 깊이 8cm정도이다. 대부분 훼손되고 일부 남은 것인데 바닥 중앙의 타원형 수혈과 그 주위 주혈

19) 慶尙南道·東亞大學校博物館 『南江流域文化遺蹟發掘圖錄』1999. p.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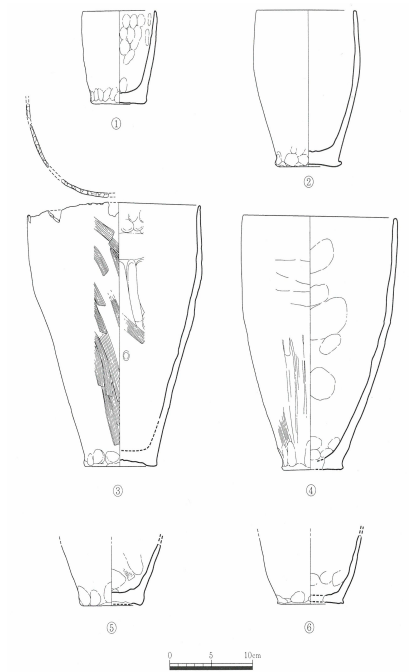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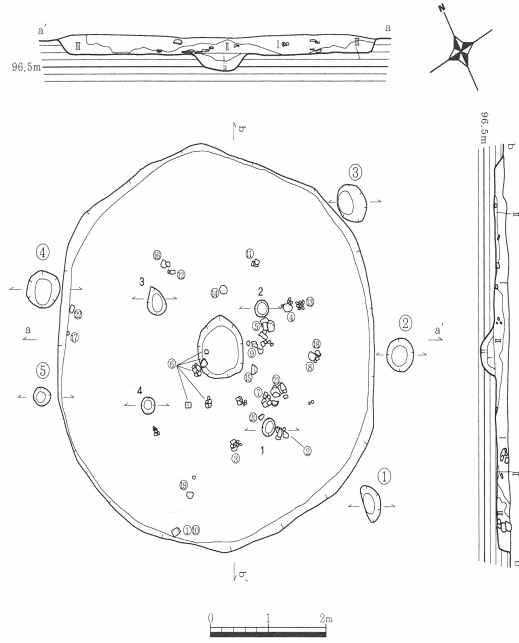


그림 1. 무선리 1호 주거지 및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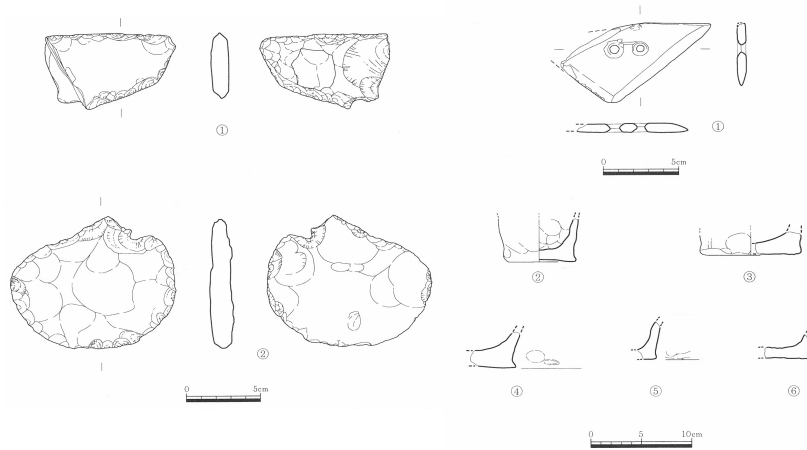


그림 2. 무선리 1호(좌), 2호(우) 출토유물

일부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전체 구조 확인은 어려웠으며 내부에서 유물은 수습되지 않았다.

함께 조사된 수혈 5기는 구근식물 저장혈이거나 구상유구의 말미부분으로 추정되는 것으로서 자세한 용도는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주거지와 관계되는 유구임은 분명해 보인다.

이상으로 무선리유적에서 확인된 송국리형 주거지와 유구내부에서 수습된 유물 가운데 주목되는 부분은 송국리형 원형주거지 평면과 여기에서 수습된 유물이다. 유물은 무문의 옹형토기와 발형토기 등의 토기와 삼각형석도, 부리형석기, 미완성석기 등이다. 평면 원형의 4주식 송국리형 주거지는 인접한 진주 대평리유적²⁰⁾을 비롯하여 남강유역 청동기시대 대부분의 유적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부리형 석기나 삼각형석도, 무문의 옹형 또는 발형토기, 단도마연토기도 전기한 유적에서 흔히 수습되는 유물과 동알 특징을 가진 것이다. 특히 청동기시대 마제석기 가운데 비교적 늦은 시기로 편년되는 삼각형석도의 출토와 평면 원형의 4주식 송국리형 주거지, 그리고 주변에 분포한 기반석과 개석지석묘 등의 특징을 고려한다면 그 사용시기는 대략 청동기시대 후기 후반정도로 편년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²⁰⁾ 慶尙南道·東亞大學校博物館 『南江流域文化遺蹟發掘圖錄』1999.

2) 거류(巨流) 신용리(新龍里)유적²¹⁾

신용리유적은 거류면 신용리 147번지 일대를 (주)성광에서 계획한 마동농공단지 조성공사과정에서 확인된 유적이다. 유적분포 범위가 방대하여 I, II, III 지구로 나누어 2007년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I 지구에서 2기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주변과 나머지 지구에서 청동기시대 석관묘 4기, 삼국시대 석곽묘 및 석실묘 18기, 고려, 조선시대 민묘 53기가 확인되었다.

그 중 청동기시대 주거지 2기는 문암산 남쪽으로 뺀 내린 구릉 말단부 사면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중 1호는 I 구역 북쪽 경계부근 해발 45.8m 지점에 위치하고 동쪽으로 청동기시대 석관묘 1기가 있었다. 주거지가 경사면에 위치하여 아래쪽 절반정도 바다가 유실되었다.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잔존부위는 평면 원형으로 직경 475cm 깊이 43cm 크기이며 내부 바닥 중앙에 원형 수혈이 있다. 그러나 수혈 주위에서 주혈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물은 일반 석재와 함께 발형 무문토기편 4점과 납작한 숯돌이 수습되었다. 바닥 중앙에 위치한 원형 수혈을 참고하면 주거지의 형태가 송국리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중앙의 수혈 주위에서 주혈이 확인되지 않아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 송국리형 주거지 가운데는 주혈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없지 않다.²²⁾ 여기에서 수습된 무문토기 저부편 4점은 모두 평지의 발형토기편으로 추측된다. 공통적으로 태토에는 사립과 석영이 혼재하고 바닥 외면에는 성형시 생긴 지두흔(指頭痕)이 있으며 황갈색을 띠는 보통 소성의 것이다. 표면 산화로 자세한 특징 파악이 어려우나 당시 다른 지역에서 수습되는 무문토기의 일반적인 특징과 대동소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함께 수습된 지석은 길이 45cm 폭 40cm 두께 18cm의 편평한 사암질이다.

2호는 남쪽 사면 말단부의 해발 41.3m 지점에서 확인되었고 남동쪽 바닥부분이 대부분 유실되었다. 평면 타원형으로 추정되며 직경 465cm 깊이 43cm 크기이다. 내부에서 유물은 수습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여기에서 확인된 주거지 2기는 모두 원상이 훼손되어 정확한 형태와 구조를 설명하기 어렵지만 1호 주거지 바닥 중앙에서 타원형 수혈이 확인되고 수습된 무문토기편의 특징을 감안하면 역시 송국리형 주거지가 훼손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사용시기도 전기한 무선리 주거지와 대동소이한 것으로 추측된다.

21) 東西文物研究院 『固城新龍里遺蹟』調查研究報告書 第18冊 2009. pp.14-18.

22) 裴德煥 『嶺南地域青銅器時代住居址研究』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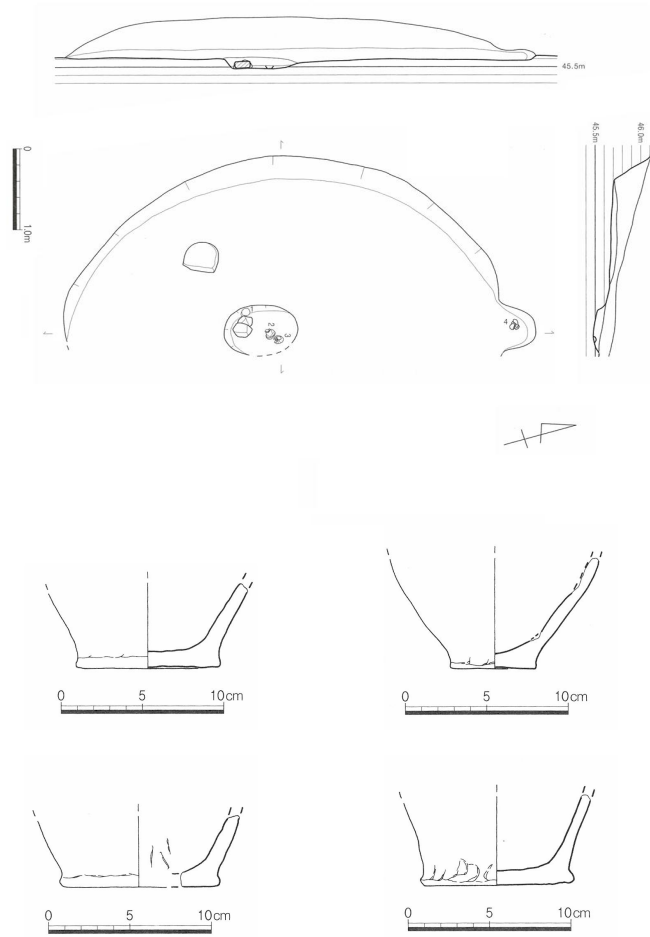


그림 3. 신웅리 1호 주거지 및 출토유물

3) 고성(固城) 울대리(栗垈里)유적²³⁾

고성읍 울대리 신55번지일원에 조성중인 고성울대산업단지 부지 내에서 주거지, 지석묘, 석관묘, 환호 등 청동기시대 유구가 확인되어 2015년 2월부터 6월 까지 경상문화재 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가운데 주거지는 모두 21기가 조사되었는데 2기는 전기나 중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나머지 19기는 후기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그중 중기에 해당하는 주거지(8호, 10호)는 남서쪽 구릉

²³⁾ 경상문화재연구원 「고성읍대일반산업단지조성부지내문화재발굴조사약식보고서」, 약식보고서 206책, 2015. pp.13-16.

상단에 위치하며 평면 장방형이다. 파손으로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무문토기 저부편, 마제석검편, 반월형석도편, 지석 등이 바닥면에서 수습되었다. 후기 주거지는 중앙에 타원형 수혈과 그 양쪽에 원형 주혈을 가진 전형적인 송국리형으로 남서쪽 구릉 상단부와 북서쪽 사면 말단부에 집중해서 분포하였다. 표 1에 나타난 것과 같이 평면 방형 또는 말각형이 11기이고 평면 원형이 8기이다. 평면이 상이한 것에서 시기적인 차이는 찾을 수 없다고 한다. 내부에 작업공, 주혈, 저장혈 등의 시설흔적이 있으며 무문토기편, 편인석부, 삼각형석도편, 석촉, 지석, 옥류 등이 수습되었다.

표 1. 청동기시대 울대리 주거지 속성표

유구명	평면형태	규모(cm)			주축 방향	출토유물	비고
		길이	너비	깊이			
1호 주거지	말각방형	424	316(잔)	26	N-36°-E	무문토기저부편, 미완성석기	중기
2호 주거지	말각방형	453(잔)	305(잔)	11	N-28°-E		중기
3호 주거지	원형	462(잔)	424(잔)	11	N-30°-E		중기
4호 주거지	원형	370(잔)	236(잔)	22	N-34°-E	삼각형석도	중기
5호 주거지	원형	430(잔)	304(잔)	8	N-20°-E		중기
6호 주거지	말각방형	446	84(잔)	9	N-25°-E		중기
7호 주거지	말각방형	313(잔)	258(잔)	20	N-22°-E	무문토기저부편	중기
8호 주거지	장방형	1425(잔)	260(잔)	7	N-22°-E	무문토기동체편, 지석	전기
9호 주거지	말각방형	466(잔)	260(잔)	23	N-33°-E	무문토기동체편, 석창, 석부, 지석, 몸돌, 미완성석기편	중기
10호 주거지	장방형	816	237(잔)	24	N-49°-E	무문토기동체편, 무문토기저부편, 마제석검신부편, 반월형석도편, 지석, 미완성석기	전기
11호 주거지	원형	385(잔)	374(잔)	7	N-66°-E	무문토기동체편	중기
12호 주거지	말각방형	373	227(잔)	42	N-60°-E	무문토기동체편	중기
13호 주거지	말각방형	365(잔)	213(잔)	27	N-64°-E	무문토기동체편, 무문토기저부편	중기
14호 주거지	말각방형	320(잔)	56(잔)	36	N-7°-W		중기
15호 주거지	말각방형	315	138	36	N-7°-W		중기
16호 주거지	원형	362	232	19	N-46°-E		중기
17호 주거지	말각방형	525	470	8	N-44°-E	무문토기저부편, 관옥, 지석	중기
18호 주거지	말각방형	436	290(잔)	18	N-36°-E	방추차	중기
19호 주거지	원형	497	400(잔)	13	N-40°-E		중기
20호 주거지	말각방형	322	232	20	N-54°-E	무문토기저부편, 석부	중기
21호 주거지	원형	450(잔)	258(잔)	11	N-48°-E	무문토기동체편	중기

지금까지 고성에서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대부분 소위 송국리형으로 분류하는 4주식 수혈주거지이다. 그러나 울대리의 경우 전기 또는 중기로 편년 가능한 장방형의 유구도 확인되어 주목하고 있다. 송국리 주거지의 경우 그 사용시기는 대부분 청동기시대 후기로 편년되는 것으로 인접한 진주대평리를 비롯한 상촌리, 내촌리 등 남강댐수몰지구조사에서도 동일 특징의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이들 자료를 함께 참고하면 고성지역 청동기시대 문화내용을 보다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2. 지식묘

1) 지식묘개요

우리나라 지식묘는 함경북도 일부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분포하며 남부지방의 경우 경상도는 물론 호남지역에도 다양한 형태의 것이 발견되고 있다.

한편 고성에는 경남에서 지식묘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넓게 분포하고 있다. 즉 서쪽의 하이면을 비롯해서 하일면, 삼산면, 상리면 동쪽의 동해면, 구만면, 마암면, 거류면, 고성읍, 대가면, 영현면, 개천면, 회화면 등 군내 전역에서 68개소에 달하는 유적들이 분포하고 있다.²⁴⁾

분포상으로 본 우리나라 지식묘는 태백산맥을 척추로 하는 남서의 산맥 간에 끼여 있는 수많은 하천유역과 해안평야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인접한 중국의 경우는 탁자식 형태를 석봉(石棚)이라고 하는데 중원에서는 아직까지 실례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동북지방인 길림성과 요령성의 경우는 탁자식지식묘가 대부분이지만 절강성, 산둥성의 경우는 기반식 지식묘가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²⁵⁾ 그리고 절강성 이남의 경우는 아직까지 확인된 것이 없으며 근래 대만에서 발견되었다고 보고되고 있는 지식묘는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근대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현해탄을 사이에 두고 인접한 일본의 경우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일본 서북구주지방에만 분포하고 있으며 그 형식은 대부분 기반식이며 시기적으로는 죠몽(繩文)문화 말기, 야요이(彌生)문화 초기인 B.C. 5세기말에서 기원 전후 시기까지 사용되고 있어서 일본 지식묘의 후진성을 말해주고 있다. 즉 우리나라 지식묘 문화가 전파되어 야요이문화를 형성시킨 하나의 요소가 된 것은 주지하는 사실이다.²⁶⁾ 참고적으로 우리나라 지식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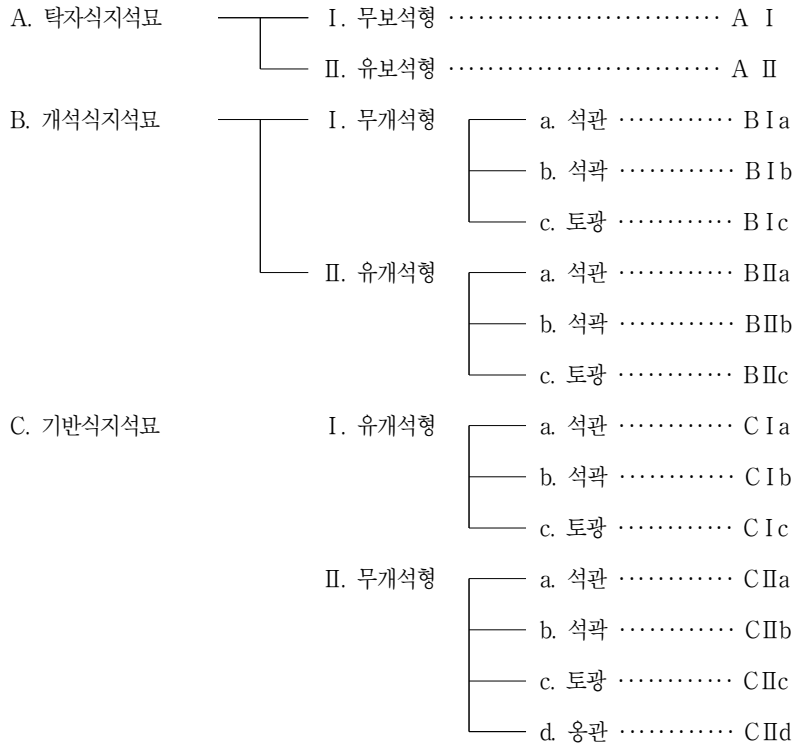
24) 固城郡·東亞大學校博物館 『文化遺蹟分布地圖 -固城郡-』2004.

25) 三上次男 『滿鮮原始墳墓の研究』東京, 1961. 97-210쪽, 許玉林 『遼東半島石棚』1994.

26) 沈奉謹 『韓國에서 본 日本彌生文化의 展開』학연문화사 1999. pp.153-210.

형태별로 분류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지식묘의 형식분류 (沈奉謹 『韓國에서 본 日本彌生文化的 展開』 1999. 게재)



2) 고성지역 지식묘 분포와 특징

고성군 내에서 확인된 지식묘 분포는 다음 표 4와 같이 고성읍 수남리를 비롯해서 동해면 양촌리, 마암면 석마리, 대가면 금산리, 하이면 석지리, 하일면 학림리, 오방리지석묘군 등 68개소나 된다.²⁷⁾ 이들 지식묘는 한 걸 같이 해안 평야나 계곡 평야 등 수변에 가까운 평지에 4기~5기가 군집하고 있다. 그리고 그 형태는 대부분 기반식이고 간혹 개석식도 혼재하고 있다. 지식묘와 관련된 유구 조사는 거류면 신용리와 최근 고성읍 울대리유적에서 부분적으로 실시되었다. 그중 신용리유적의 경우 제3호 석관묘가 주목된다. 이미 주거지 부분에 유적의 위치와 조사경위에 대해서는 이미 소개한 바와 같다. 조사자가 석관묘를 소개하

²⁷⁾ 固城郡·東亞大學校博物館 『文化遺蹟分布地圖 -固城郡-』 2004.

는 과정에서 제3호 석관묘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²⁸⁾ 3호 석관묘는 표고 35.7m지점에 위치하며 북서쪽으로 7m정도 이격해서 2호 석관묘가 있다. 석관은 기반층인 풍화암반층 위에 퇴적된 적갈색 사질점토층을 등고선과 평행하게 남북 장축으로 장방형 묘광을 굴착하고 그 속에 할석으로 석곽형 묘실을 축조하고 있다. 석관묘의 개석은 장대석을 걸친 상태이다. 그 위에 다시 대형 할석들이 놓여있는데 위에서 무거운 중압을 받은 상태였다. 바닥은 자연암반층 그대로이고 할석을 이용한 벽석은 2-3단정도 남아있다. 석관 길이 170cm 폭 50cm 깊이 20cm정도이다. 유물은 내부 서장벽 남쪽에서 마제석검 1점과 석촉 2점이 출토되었다. 석검은 유병식으로 훼손된 것을 복원한 것이며 석촉도 단절된 것을 연결시킨 것이다. 모두 부장당시 파손시켜 매장한 것이 특징이다. 석검 길이 11.3cm 신부 폭 1.4cm 신부 두께 0.7cm 석촉 잔존길이 5.7 cm 폭 1.0 cm 두께 0.7cm이다., 이 유구가 지석묘라고 추정해 보는 것은 보고문 가운데 장대석으로 걸쳐진 개석 위에 다시 대형 할석들이 놓여있는데 무거운 중압에 의해 눌러진 상태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개석 위에 놓였던 대형 할석들은 지석일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 그 위에 올려놓은 상석의 중압으로 개석이 눌러진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또 할석으로 축조한 석곽형 묘실, 고의적으로 파손시켜 매납한 마제석검과 석촉 등의 매장풍습은 석관묘와 관련이 없다고 말 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동일시기 남부지방 지석묘 특징과 매우 관련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3호 석관묘는 상석이 이동된 지석묘 하부구조일 가능성이 많다. 뿐만 아니라 신유리유적 주변의 용산리, 거산리, 가려리, 은월리, 월평리, 울대리 등 거류산 서쪽에 지석묘가 집중 분포한다는 점에서도 그 추정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이 유구가 지석묘 묘실이 분명하다면 고성에서는 처음 조사에서 확인된 유구가 되는 셈이다. 다음 고성읍 울대리유적이다.²⁹⁾ 전기한 주거지부분에서 이미 소개된 것과 같이 공단조성과정에서 주거지와 함께 조사되었다. 모두 20기가 조사되었는데 지석묘 상석은 경작으로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유실되고 하부 묘실부분만 확인되었다. 묘실은 판석으로 조립한 상형의 소형석관이 일부 나타나고 대부분 할석으로 축조한 석곽형이다. 개중에는 장방형 토광에 개석을 걸친 석개토광형과 할석으로 구획된 부석층을 가진 석곽형 등 다양한 형태이지만 시기적으로는 늦은 단계의 것으로 파악된다. 정식보고서를 접하지 못해 정확한 축조수법은 알 수 없으나 개별적인 특징은 다음 표 3에 나타난 것과 같다.

²⁸⁾ 東西文物研究院 『固城新龍里遺蹟』 調查研究報告書 第18冊 2009. pp.21-25.

²⁹⁾ 경상문화재연구원 「고성울대리일반산업단지조성부지내문화재발굴조사약식보고서」 약식보고서 206책. 2015. pp.17-22.

표 3. 청동기시대 올대리 매장유구 속성표

유구명	평면 형태	규모(cm)			주축 방향	출토 유물	비고
		길이	너비	깊이			
1호 지석묘	장방형	241	106	53	N-23°-E		석곽묘
2호 지석묘	장방형	242	90	40	N-14°-E	단도마연토기	석곽묘
3호 지석묘	장방형	230	102	74	N-24°-E	단도마연토기, 마제석검	석곽묘
4호 지석묘	장방형	245	105	31	N-32°-E	곡옥	석곽묘
5호 지석묘	장방형	165	71	15	N-61°-E		석개토광묘
6호 지석묘	장방형	193	69	49	N-76°-E	무문토기편, 석촉	소형석관묘
7호 지석묘	장방형	189	57	47	N-73°-E		석개토광묘
8호 지석묘	장방형	286	112	26	N-62°-E	마제석검, 석촉	석개토광묘
9호 지석묘	장방형	242	108	34	N-56°-E		석개토광묘
10호 지석묘	장방형	238	92	10	N-68°-E		석곽묘
11호 지석묘	장방형	189	64	15	N-40°-E	방추차	석곽묘
12호 지석묘	장방형	218	92	34	N-55°-W		석개토광묘
13호 지석묘	장방형	216	79	43	N-56°-E	마제석검, 석촉	석개토광묘
14호 지석묘	장방형	344	204	24	N-6°-W	무문토기편, 마제석검, 석촉	석곽묘 (묘역식지석묘군)
15호 지석묘	장방형	274	154	15	N-73°-E		석곽묘 (묘역식지석묘군)
16호 지석묘	장방형	126	68	21	N-84°-E		소형석관묘 (묘역식지석묘군)
17호 지석묘	장방형	112	80	3	N-77°-E		석곽묘 (묘역식지석묘군)
18호 지석묘	장방형	238	120	5	N-56°-E		석곽묘 (묘역식지석묘군)
19호 지석묘	장방형	140	39	16	N-83°-E		석곽묘 (묘역식지석묘군)
20호 지석묘	장방형	134	86	40	N-7°-W		소형석관묘 (묘역식지석묘군)

표 4. 고성지역 지석묘·입석·무문토기 산포지 지명표 (주 17에서 게재)

연번	유적·유물명	연번	유적·유물명
1	固城 校社里 支石墓	41	固城 晨盆里 立石
2	固城 校社里 支石墓群	42	固城 晨盆里 遺物散布地 V
3	固城 校社里 先史時代墳墓	43	固城 禮城里 支石墓
4	固城 德仙里 支石墓	44	固城 清光里 立石
5	固城 武良里 遺物散布地 I	45	固城 廣德里 支石墓群 I
6	固城 水南里 支石墓	46	固城 廣德里 支石墓群 II
7	固城 月坪里 칠성바위	47	固城 龍臥里 支石墓群
8	固城 米龍里 支石墓	48	固城 孝洛里 住居址
9	固城 長峙里 支石墓 I	49	固城 孝洛里 支石墓群 I
10	固城 長峙里 支石墓 II	50	固城 孝洛里 支石墓群 II
11	固城 洙陽里 支石墓	51	固城 孝洛里 支石墓群 III
12	梧芳里 支石墓	52	固城 孝洛里 支石墓 I
13	固城 梧芳里 支石墓群	53	固城 孝洛里 支石墓 II
14	鶴林里 支石墓	54	固城 鹿鳴里 住居址
15	固城 鶴林里 遺物散布地	55	固城 鳳東里 先史遺蹟 I
16	固城 德湖里 支石墓	56	固城 鳳東里 先史遺蹟 II
17	固城 沙谷里 支石墓群	57	固城 語新里 支石墓群
18	固城 石芝里 住居址	58	固城 寶田里 支石墓群
19	石芝里 支石墓	59	固城 石馬里 支石墓群
20	石芝里 支石墓 I	60	固城 新里 支石墓
21	石芝里 支石墓 II	61	固城 內山里 支石墓
22	石芝里 支石墓群	62	固城 陽村里 支石墓群 I
23	固城 月興里 支石墓群	63	固城 陽村里 支石墓群 II
24	固城 月興里 遺物散布地 II	64	固城 陽村里 支石墓群 III
25	固城 武仙里 住居址	65	固城 陽村里 支石墓群 IV
26	固城 武仙里 支石墓群	66	固城 佳麗里 支石墓 I
27	固城 滌煩亭里 支石墓群	67	固城 佳麗里 支石墓 II
28	固城 琴山里 支石墓群 I	68	固城 甘西里 支石墓
29	固城 琴山里 支石墓群 II	69	固城 巨山里 遺物散布地
30	固城 琴山里 支石墓群 III	70	固城 巨山里 支石墓 I
31	固城 琴山里 支石墓	71	固城 巨山里 支石墓 II
32	固城 岩田里 支石墓群	72	固城 巨山里 支石墓 III
33	固城 柳興里 支石墓 I	73	固城 巨山里 支石墓 IV
34	固城 柳興里 支石墓 II	74	固城 巨山里 石棺墓 I
35	固城 柳興里 支石墓 III	75	固城 巨山里 石棺墓 II
36	固城 柳興里 支石墓 IV	76	固城 松山里 칠성바위
37	固城 柳興里 支石墓 V	77	固城 龍山里 支石墓群
38	固城 柳興里 支石墓群 I	78	固城 銀月里 支石墓
39	固城 柳興里 支石墓群 II	79	固城 銀月里 支石墓群 I
40	固城 晨盆里 支石墓	80	固城 銀月里 支石墓群 II

3. 석관묘

청동기시대에는 전기한 지식묘 뿐만 아니라 함께 석관묘도 사용되었다. 석관묘란 매장주체인 피장자의 매납을 위해 오늘날 장례행위에서 사용되는 목관을 대신해서 판석을 조립하거나 활석을 쌓아 관으로 이용하는 묘제이다. 석관묘는 재료는 다르지만 청동기시대 초기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다. 전기한 지식묘는 묘 표지석에 해당하는 상석이 지상에 노출되어 쉽게 그 판별이 가능하지만 석관묘는 봉분없이 지하에 매장되어 식별이 어려워 지금까지 발견 예가 드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도시개발과 도로공사 등 국토에 대한 형질변경이 자주 이루어지면서 구제발굴과 같은 학술조사에 의해 새로운 자료들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고성지역에서는 1970년대에 하일면 송천리 솔섬에서 석관묘가 처음 발굴조사 되어 국내는 물론 일본에서도 주목을 끌었다.³⁰⁾ 그러나 송천리 석관묘는 청동기시대 유구가 아니고 삼한시대의 것이다.

한편 청동기시대에 해당하는 석관묘는 최근에 들어와서 확인되기 시작하였다. 즉 마암면 두호리유적을 비롯해서 고성읍 교사리, 거류면 신용리, 회화면 봉동리유적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1) 마암(馬岩) 두호리(頭湖里)유적³¹⁾

두호리유적은 마암면 두호리 214번지 일대에 위치한다. 이 유적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건설구간 부지내에서 확인된 것을 1998년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알려진 유적이다. 두호리유적은 당항만 서쪽 사월산의 남쪽 구릉 말단부 지역으로 그 완사면에서 3기의 석관묘가 발견되었다.

그 중 1호 석관묘는 표고 42m의 구릉정상에 위치했다. 석관은 자연암반을 남동-북서 장축으로 굴착해서 묘광을 먼저 설치하고 다시 그 속에 장방형 석관을 조립하였으나 뒷날 관재로 사용된 판석 대부분이 유실되고 단벽 일부만 남아 있었다. 묘광 길이 220cm 폭 72cm 깊이 15cm정도 크기였다. 주목되는 것은 남쪽 단벽 외측에 별도로 공간을 마련하여 채문토기 2점을 부장한 점이다. 2점 모두 파손된 것을 도면 복원하였더니 저부가 등근 단경호 형태로서 외반하는 구연부에 등근 동부를 가진 것이며 최대경은 약간 하위에 있다.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한 태도에 기벽이 얇고 전체 기면이 흑갈색을 띄는데 U자형 채문은 더욱 진한 흑색으로 견부에만 배치하고 있다. 그중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1점은 높이

30) 金東鎬 『固城松川里 솔섬 石棺墓』 동아대학교 박물관, 1977,

31) 慶南考古學研究所 『固城頭湖里遺蹟』 2000.

19.3cm 구경 9.8cm 저부 직경 7.0cm 동부 최대경 18.3cm 크기이다.

2호는 표고 40m의 전기한 1호묘 아래에 위치하며 자연암반층을 남-북 장축으로 굴착해서 먼저 장방형 묘광을 만들고 그 속에 다시 점판암제 판석을 이용하여 바닥과 양장·단벽을 상자형으로 조립한 형태이다. 유물 부장 공간인 남쪽 단벽 바깥은 계단상으로 굴절되어 있고 개석은 없었다. 유물은 부장 공간에서 채문토기로 보이는 토기편이 수습되었으나 특징 파악이 어려운 것이었다. 추정컨대 전기한 1호 석관묘에서 출토된 토기와 동일한 채문토기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석관 내부 북쪽 단벽 가까운 서쪽장벽 아래에서 천하석제(天河石製) 식옥(飾玉) 1점이 수습되었다. 석관 내부 크기 길이 88cm 폭 21cm 깊이 13cm 정도의 소형이었고 수습된 식옥은 직경 1.2cm 두께 0.6cm 크기이다.

3호는 2호 아래 표고 39m에서 확인되었다. 자연암반을 동-서 장축으로 굴착해서 장타원형 묘광을 먼저 설치하고 그 속에 판석을 이용해서 상자형 석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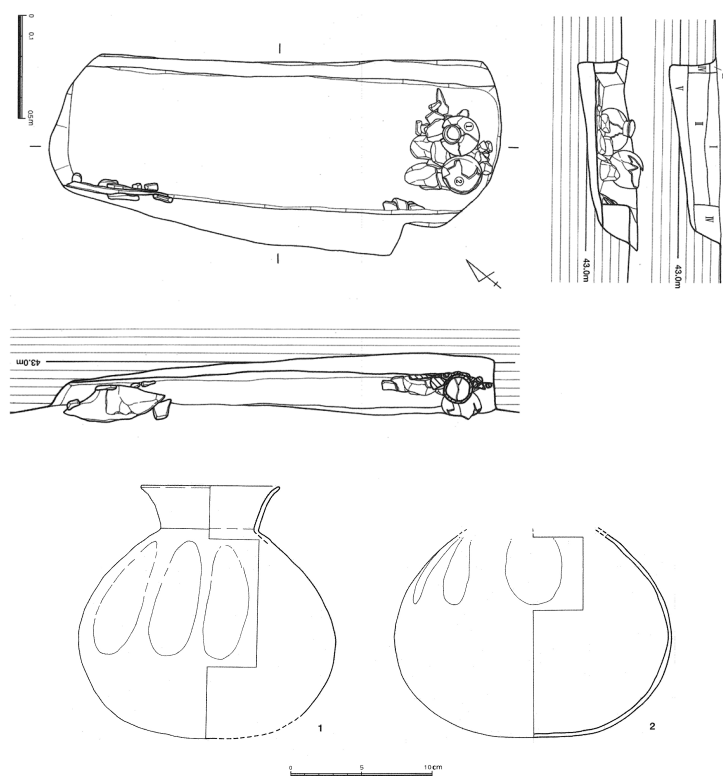


그림 4. 두호리 1호묘 및 출토유물

다시 조립한 형태이다. 당시 사용된 판석은 일정 규격을 가진 것이 아닌 다양한 크기이며 석관 형태도 상자와 같이 장방형의 정형성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서쪽 단벽부분에 부장 공간을 마련했던 것이 예상되지만 형태 파악이 어려웠고 유물도 수습되지 않았다. 석관 내부 크기 길이 77cm 폭 33cm 깊이 20cm 정도의 소형으로 부류되는 것이었다.

이상과 같은 형태의 석관묘는 그 구조와 내부에서 수습된 유물의 특징을 참고하면 청동기시대 전기에 축조된 것으로 파악된다.

2) 고성(固城) 교사리(校社里)유적³²⁾

교사리유적은 고성읍 교사리 산 31-6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하는 고성-자은간 국도확포장공사구역 부지내에 포함되어 발굴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이 조사과정에서 석관묘 2기가 확인되었다.

그중 1호 석관묘는 풍화암반층을 동-서 장축으로 굴착해서 장방형 묘광을 구축하고 그 속에 판석을 이용하여 상자형 석관을 조립한 형태인데 바닥은 암반층 그대로를 이용하고 있다. 개석과 남쪽장벽 일부가 유실되어 전체특징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잔존부위에 의하면 개석을 덮은 상자형 석관묘는 분명해 보였다. 석관 길이 214cm 폭 55cm 깊이 80cm의 비교적 대형에 속하는 것이다. 유물은 동쪽 단벽 아래에 판석을 별도로 깔고 그 위에 채문토기 2점을 부장하였다. 파손이 심해서 원상 파악이 어려운 것이지만 전기한 두호리 석관묘에서 수습된 채문토기와 그 특징이 대동소이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잔존높이 11.5cm 두께 0.4cm 정도이다.

2호 석관묘는 표고 36m의 구릉 정상부에서 확인되었다. 전기한 1호와 같이 풍화암반층을 동-서 장축으로 굴착하여 장방형 묘광을 구축하고 그 속에 점판암제 판석을 세워 상자형 석관을 조립하였으나 동쪽, 서쪽단벽과 북쪽장벽 일부가 유실되어 정확한 형태는 파악할 수 없었다. 그러나 2호 석관의 경우 판석 4매를 일정 간격으로 배치하여 시상대(屍床臺)로 사용한 것이 1호 석관과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석관의 크기는 길이 230cm 폭 50cm 깊이 75cm의 비교적 대형에 속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유물이 수습되지 않았으나 석관의 규모가 보다 대형이라는 점이 두호리와 차이가 있다. 나머지 입지, 구조, 출토유물, 축조시기 등은 역시 대동소이 할 것으로 추측된다.

³²⁾ 慶南文化財研究院 『固城校社里遺蹟』學術調查研究叢書 第21輯,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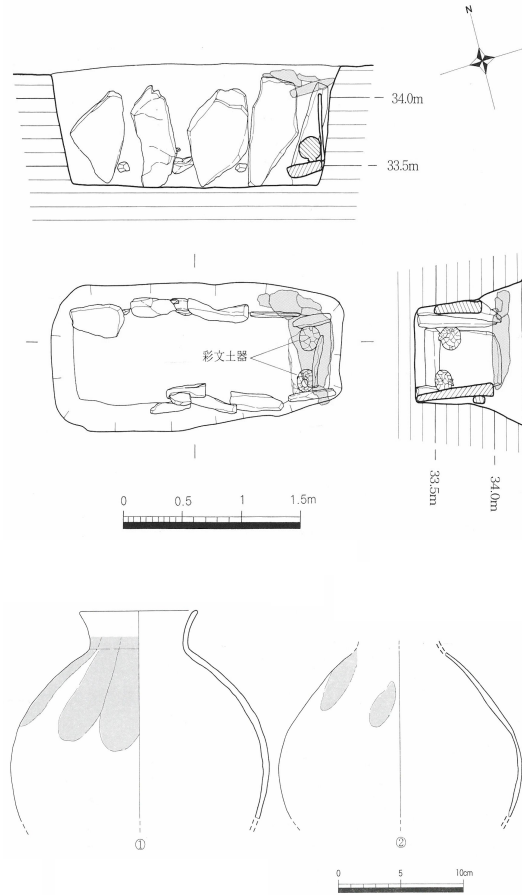


그림 5. 교사리 제1호 석관묘 및 출토유물

3) 거류 신용리유적³³⁾

신용리유적은 전장에서 이미 설명한 것과 같이 거류면 신용리 147번지 일대를 (주)성광에서 계획한 마동농공단지 조성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다. 그중 I지구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 2기와 함께 주변에서 석관묘 4기가 확인되었다.

그 중 1호 석관묘는 표고 40m지점으로 서쪽으로 9m정도 이격해서 1호 주거지가 위치하고 있다. 조사당시 석관의 절반정도가 유실된 상태였는데 유구는 기반층인 풍화암반층 위에 퇴적된 적갈색사질점토층을 등고선과 직교하게 동서 장축의 장방형 묘광을 먼저 굴착하고 그 속에 다시 판석을 이용하여 상자형

³³⁾ 東西文物研究院 『固城新龍里遺蹟』 調查研究報告書 第18冊 2009. pp.19-26.

석관을 조립한 것이었다. 유구 서쪽부분 유실로 개석이나 장·단벽의 축조방법을 알 수 없지만 잔존부위에 의하면 바닥에는 판석편을 전면에 깔고 장·단벽은 판석을 세워서 조립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석관의 잔존길이 156cm 폭 47cm 깊이 8cm정도이다. 내부에서 유물은 수습되지 않았다.

2호 석관묘는 표고 35.5m지점에서 확인되었으며 동남쪽으로 7m정도 떨어져 3호석관묘가 위치하고 있었다. 유구 대부분이 유실되고 겨우 기단석과 바닥면 일부만 확인될 정도였다. 석관은 기반층인 풍화암반층 위에 퇴적된 적갈색사질점토층을 등고선과 나란한 남-북 장축의 장방형 묘광을 먼저 굴착하고 그 속에 다시 할석을 이용하여 석곽형 묘실을 축조하였다. 심한 훼손으로 개석이나 장·단벽의 축조방법 등의 특징은 자세히 파악할 수 없었는데 바닥의 경우 풍화암반층 그대로를 이용한 느낌이 들었다. 석관의 길이 165cm 폭 54cm 깊이 40cm정도이다. 내부에서 유물은 수습되지 않았다.

3호 석관묘는 표고 35.7m지점에서 확인 되었으며 북서쪽으로 7m정도 이격해서 2호 석관묘가 위치하고 있다. 석관은 기반층인 풍화암반층 위에 퇴적된 적갈색사질점토층을 등고선과 평행하게 남-북 장축의 장방형 묘광을 먼저 굴착하고 그 속에 다시 할석을 이용하여 석곽형 묘실을 축조하였다. 석관의 개석은 장대석을 걸친 상태인데 그 위에 다시 대형 할석들이 놓여있고 위에서 무거운 중압을 받은 상태였다. 바닥은 자연암반층 그대로이고 할석을 이용한 벽석은 2단~3단정도 남아 있었다. 조사자는 의식하지 못했지만 유구의 잔존 상태로 미루어보아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지석묘의 상석이 이동되고 그 하부 구조만 남은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 주목된다. 석관 길이 170cm 폭 50cm 깊이 20cm정도이다. 유물은 내부 서쪽장벽 남쪽에서 마제석검 1점과 석촉 2점이 수습되었다. 그중 석검은 유병식으로 훼손된 것을 복원한 것이고 석촉도 단절된 것을 연결시킨 것이다. 모두 부장당시 고의적으로 파손시켜 매장한 것이 특징이다. 석검 복원길이 11.3cm 신부 폭 1.4cm 신부 두께 0.7cm 석촉 잔존길이 5.7 cm 폭 1.0 cm 두께 0.7cm이다.

4호 석관묘는 표고 36.2m지점에서 확인되었으며 북쪽으로 19m정도 이격해서 3호 석관묘가 위치하고 있다. 석관은 기반층인 풍화암반층을 등고선과 평행하게 남서-북동 장축의 장방형 묘광을 먼저 굴착하고 그 속에 다시 할석을 이용하여 석곽형 묘실을 축조하였다. 석관의 개석으로 사용된 장대석이 석관 내부에 쌓여있는 것으로 보아 후대에 교란을 입은 듯 했다. 개석은 장대석을 걸쳤던 것으로 추정되며 바닥은 자연암반층 그대로를 이용하였다. 벽석은 2단~3단정도 할석을 쌓은 형태이다. 석관 길이 160cm 폭 45cm 깊이 42cm정도 크기이다. 내부에서 유물은 수습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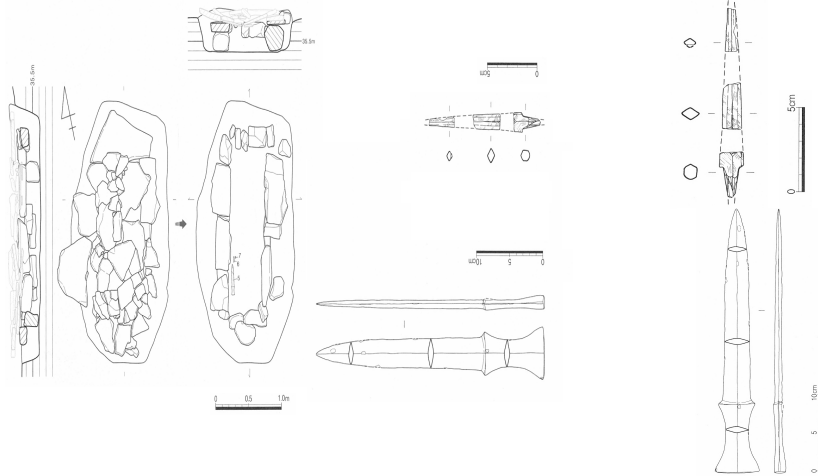


그림 6. 신용리 3호 석관묘와 출토유물

신용리유적 석관묘 4기는 대부분 훼손되었으나 어느 정도 형태 파악이 가능하여 다행스럽게 생각된다. 1호는 판석으로 조립한 석관 형태이지만 나머지 3기는 모두 할석으로 축조한 석곽형태의 것이다. 유구간의 년대적 차이는 자세하지 않지만 3호 석관의 경우 지석묘의 상석이 이동된 지석묘 하부구조일 가능성이 매우 크며 내부에서 수습된 유물 또한 마찬가지이다. 석곽형 묘실이 많고 3호에서 출토된 유물의 특징을 참조하면 그 축조시기는 역시 청동기시대 후기로 편년 가능하며 전기한 주거지유적과 동일한 사람들의 분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회화(會華) 봉동리(鳳東里)유적.³⁴⁾

회화면 봉동리 114-1번지일대의 야산을 고성 노벨컨트리클럽에서 부지확장공사를 실시하던 중 확인된 유적이다. 유적은 남쪽으로 당항만을 조망할 수 있는 한밭안산(해발 125.9m) 남단의 설상구릉(해발 25m)에 위치했다. 조사지역 평면은 남-북으로 길게 뻗은 세장형에 가깝고 길이 150m 폭 20m 규모이다. 지질은 표토 바로 아래에 풍화암반토가 나타날 정도로 표토층이 얇았다. 조사과정에서 청동기시대 석관묘 1기를 비롯해서 조선시대 토광묘, 회곽묘, 방형묘, 석곽묘 등 모두 11기의 분묘가 확인되었다. 그중 청동기시대 석관묘는 조사지역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묘광은 풍화암반층을 길이 210cm 폭 116cm 깊이

³⁴⁾ 부경문화연구원 「고성노벨컨트리클럽조성사업부지내문화유적발굴조사결과약보고서」2014.

56cm 크기로 굴착해서 장방형 수혈을 먼저 구축하고 그 속에 다시 점판암제 판석을 이용하여 양 장벽과 단벽 그리고 바닥을 상자형으로 조립하였다. 이때 양 장벽과 바닥은 2매 판석을 연결시킨 상태이고 양 단벽은 1매 판석을 이용하였다. 또 개석도 길이 190cm 폭 70cm 크기의 1매 판석을 이용하였다. 석관 길이 184cm 폭 56cm 깊이 56cm 크기이다. 유물은 북쪽 단벽 층진토 속에서 적갈색 단도마연 호형토기와 회갈색 호형채문토기가 파손된 채 수습되었다. 조사자는 청동기시대 중기후반으로 편년되는 특징을 가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 봉동리유적 근처에서도 과거 유명식 마제석검이 수습되어 신고 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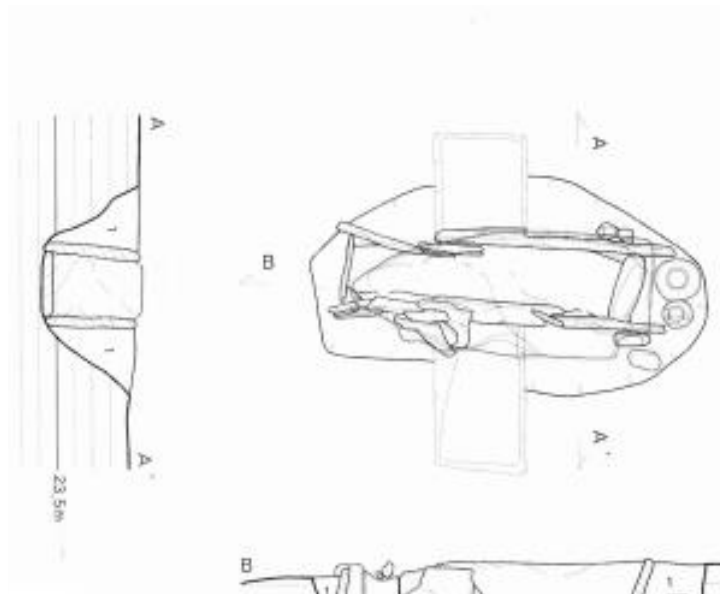


그림 7. 봉동리 석관묘 실측도

4. 마제석검

1) 출토유적과 유물의 특징

고성군 내에서 출토되어 알려진 마제석검은 모두 4점이다. 그리고 최근 울대리지석묘에서 수점 출토된 것으로 약식보고서에 소개하고 있으나 도면이나 사진을 제시하지 않아 여기서 설명하기 어렵다. 다음 기회에 소개할 예정이다. 이미 알려진 4점 가운데 1점은 1971년 4월 지석묘가 집중 분포하는 대가면 금산리에서 출토되어 신고 된 것이고 1점은 1972년 1월 회화면 봉동리 유물산포지에서 출토되어 신고 된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2점은 최근 발굴조사에서 석축과 함께

거류면 신용리유적과 고성읍 울대리유적에서 각각 수습된 것이다. 먼저 금산리유적은 전기한 바와 같이 지석묘가 분포하고 있어서 여기서 출토된 석검은 지석묘와 관련이 많을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주민신고로 알려진 유물이므로 출토경위는 알 수 없다. 지석묘를 비롯한 청동기시대 유적이 주변에 밀집 분포하는 것을 감안하면 유물이 출토된 유구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기 어렵다. 석검은 점판석제로 무단무절(無段無節)의 유병식이다. 소형으로 검신이 짧고 그 단면은 능형을 이루며 봉부(鋒部)와 인부가 부분적으로 파손되었으나 날카롭다. 심부(鏢部)는 두출(斗出)이 적고 짧은 평부 단면은 렌즈형이며 병두(柄頭)도 심부 쪽과 동일한 직선상의 것이다. 형태상으로는 IIIb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금산리지석묘가 개석식과 기반식이 혼재하고 있는 것과 시기적으로 잘 어울린다 할 수 있다. 전체 길이 19cm, 검신 길이 11.4cm, 자루 길이 7.4cm, 검신 폭 3.2cm이다. 다음 회화면 봉동리출토 마제석검도 신고 된 유물이어서 출토경위와 유구가 자세하지 않다. 고성군내 문화유적에 대한 지표조사과정에서 회화면 봉동리 506~539번지 일대와 1212~1221번지 일대 2곳에 청동기시대 유물산포지가 발견되어 주위에 석검과 관련된 유구가 분포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³⁵⁷ 석검은 점판암제로 표면에 석질류문이 있는 유단의 유병식이다. 검신은 짧고 얇으며 그 단면은 편육각형이다. 봉부는 예리하고 날카로운 느낌을 주고 인부는 재생한 것인지 양인의 폭이 넓고 역시 날카로우나 한쪽에 파손된 흔적이 있다. 심부는 두출이 확인하지만 두출부분을 제외하면 병부와 구분 없이 그저 납작한 형태를 하고 있다. 병부의 有段은 양 가장자리에 홈을 파놓은 정도로 생략된 상태이며 단면은 렌즈형이고 병두는 심부보다 미발전된 것이다. 소형이지만 표면의 마연상태로 미루어보아 장기간 사용하면서 재생하였을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심부를 제외하면 형태상으로 고식에 속한다고 생각되지만 우선 그 마지막 사용시기는 IIIb단계로 편년함이 옳을 듯싶다. 전체 길이 21.4cm 검신 길이 12.4cm 자루 길이 8.5cm 검신 폭 5.0cm 자루 폭 3.4cm이다. 마지막 전기한 신용리 3호 석관묘에서 수습된 석검은 점판암제로 표면 산화가 심하며 인부도 산화로 마멸이 심한 느낌이 든다. 검신부가 절단된 것을 복원한 것이며 무단무절의 유병식으로 병부에 비해 검신이 길고 타원형에 가까운 둥근 봉부에서 병부 끝까지 능선이 뚜렷하다. 검신, 병부 모두 단면은 능형이며 심부는 돌출이 미약한 시작단계이다. 석질 탓인지 표면 산화가 막심하여 장시간 사용된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김해부원동³⁶⁰출토 석검과 매우 유사하며 IIIb단계로 편년 가능할 것이 예상된다. 함께 수습된

³⁵⁷ 固城郡·東亞大學校博物館 『文化遺蹟分布地圖 -固城郡-』2004.

³⁶⁰ 沈奉謹 『金海府院洞遺蹟』 동아대학교 박물관. 1981. pp.86-90.

석촉도 단절된 것을 연결시킨 것인데 유엽형의 유경촉으로 촉신이 길고 그 단면은 능형이다. 경부는 끝이 뾰족하고 단면 육각형의 것이다. 모두 부장당시 고의적으로 파손시켜 매장한 것이 특징이다. 석검 복원길이 11.3cm 신부 폭 1.4cm 신부 두께 0.7cm 석촉 잔존길이 5.7cm 폭 1.0cm 두께 0.7cm이다. 울대리 지석묘 출토품은 조사보고서 미간행으로 그 특징을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사진으로는 전기한 신용리 출토품과 형태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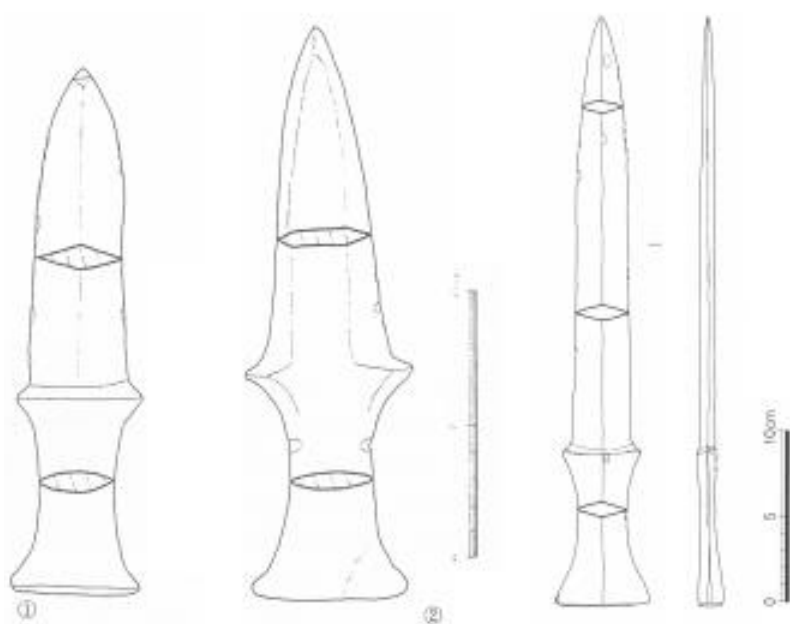


그림 8. 고성군내 출토 마제석검(①금산리 ②봉동리 ③신용리)

2) 고성출토 석검의 편년적 위치

이상과 같이 고성군 내에서는 III단계에 해당하는 특징을 가진 석검이 출토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마제석검은 크게 I~V단계로 그 시기 구분이 가능하고 각 단계는 다시 A, B로 세분할 수도 있다. 그 중 제 I 단계는 유병식석검과 유경식석검의 두 종류가 있다. 모두 신부가 짧고 양 인부는 둥근 맛이 있으며 중앙에는 피홈을 갖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유경식 석검은 경부가 비교적 긴 것과 짧은 것의 두 종류가 있으며 추측컨대 경부에는 유병식석검의 병부형태와 동일한 나무자루가 부착되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제 I 단계 석검 가운데 유경식과 유병식 중 가장 고식으로 알려진 것은 모두 팽이

형 토기 유적에서 출토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병식 석검은 유경식 석검을 조형으로 삼아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아 주목된다. 그러나 단언하기는 어려우며 제Ⅰ단계 석검의 사용 시기는 파주 옥석리 주거지에서 출토된 석검³⁷⁾ 연대를 참고하면 B.C. 8세기경으로 추정 가능하게 한다.

다음 제Ⅱ단계 역시 유경식석검과 유병식석검 두 종류가 있다. 그러나 그 특징은 전기한 제Ⅰ단계와 큰 차이는 없다. 다만 병부의 유단 폭이 좁아지면서 피홈이 없어진 것이 특징이라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제Ⅱ단계 역시 유경식석검과 유병식석검 두 종류가 있으며 그 특징은 전기한 제Ⅰ단계와 큰 차이는 없으나 병부의 유단 폭이 좁아지면서 피홈이 없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제Ⅱ단계의 사용 시기는 경기도 여주 혼암리 2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석검³⁸⁾을 참고하여 B.C. 7세기경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음 제Ⅲ단계는 유병식석검의 병부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시기로서 전단계의 두 종류 이외에도 유절식이나 무단무절식의 것이 첨가되어 나타난다. 그 중 유경식석검은 길어진 경부 끝 양측에 홈을 새겨 착병시(着柄時) 편리하도록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또 유병식은 검신과 병부가 모두 길어지나 이에 비례해서 폭이 좁아지는 경향을 띤다. 이 단계에 유절식과 무단무절식이 나타나는데 유절식의 경우 중국의 도씨검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제Ⅲ단계의 사용 시기는 제천 황석리 지석묘 연대와 춘추 중말 도씨동검 연대로 참고하면 B.C. 6세기경으로 편년 가능할 것이 예상되며 고성 금산리를 비롯한 봉동리, 신용리출토 석검들은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그 다음의 제Ⅳ단계는 그 특징이 다양한 시기이며 유경식석검은 경부가 짧아지면서 검신은 더욱 길어진다. 또 유병식석검은 심부와 병부의 돌기가 심해지고 봉선은 이등변삼각형을 띤 정도로 날카로워진다. 그리고 검신은 세장해지며 양인부는 일직선상을 띤다. 동반된 석촉은 유엽유경의 장대형 석촉이며 전남 운대리,³⁹⁾ 충남 송국리⁴⁰⁾, 경남 진동리에서는 고조선식동검도 함께 출토되어 주목되고 있으나 진동리출토품⁴¹⁾ 이외에는 일단 전세품으로 간주하고 B.C. 5세기로 추정하였다. 제Ⅳ단계의 것이 일본 야요이문화 초기에 출현⁴²⁾한다는 사실도 참고가 될 것이다.

37) 國立中央博物館 『韓國支石墓研究』國立中央博物館遺蹟調查報告 第6冊. 1967. pp.23-50.

38) 任孝宰 『欣巖里住居址4』서울대학교박물관. 1978. pp.10-11.

39) 有光教一 『朝鮮磨製石劍の研究』京都大學 文學部 考古學 叢書 第2輯. 1959. p.62.

40) 金永培 安承周 『扶餘松菊里遼寧式銅劍出土石棺墓』 『百濟文化』7,8합집. 1975. pp./7-30.

41) 沈奉謹 『慶南地方出土青銅遺物の 新例』 『釜山史學』4輯. 1980. pp.161-182.

42) 沈奉謹 『韓國에서 본 日本彌生文化의 展開』학연문화사 1999. pp.213-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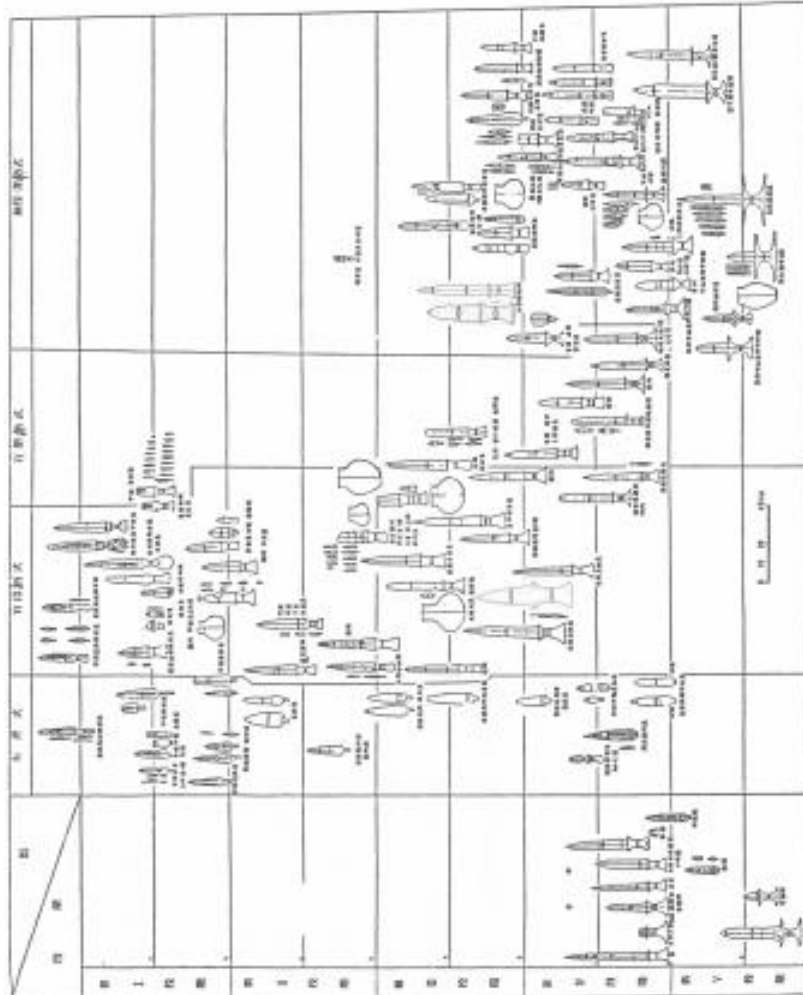


그림 9. 우리나라 마제석검 편년도
(심봉근 『한국청동기시대문화의 이해』 동아대학교 출판부, 1999.)

제V단계는 유경식과 무단무절의 유병식석검 2종류가 있다. 그 중 유경식석검 경부가 짧아지고 검신은 장타원형을 띄는 단면 렌즈형이 된다. 유병식석검은 검신이 짧아지고 병부는 과장되어 마치 의기처럼 퇴화된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시기 철기의 유입으로 전형적인 마제석검은 그 제작 또는 사용이 마감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제V단계의 사용 시기는 김해 무계리와 부산 괴정동에서 출토된 단도마연토기⁴³⁾와 청동촉, 석촉 등을 참고 하면 B.C. 4세기로 편년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설명된 마제석검 분류와 편년을 참고한다면 고성지역에서 출토된 마제석검은 B.C.6세기 후반에서 B.C. 5세기경으로 편년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이 석검을 사용한 시기가 고성지역에서는 청동기문화가 왕성한 때였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앞에서 이미 설명된 지식묘를 비롯한 석관묘 특징과도 시기적으로 상호 연계되는 내용이어서 고성의 청동기문화 이해에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5. 환호

⁴⁴⁾고성읍 울대리산업단지 남쪽 경계부분에 해당하는 구릉의 8부 능선상에서 확인되었다. 구릉 정상부에는 도굴된 대형석실분이 위치하고 북쪽으로 얼마 안 되는 지점에 대형 상석을 가진 지식묘가 있다. 표본조사당시 석렬 일부가 노출되어 정상부에 있는 고분의 호석이나 배묘와 같은 소형석관묘가 파괴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정식발굴조사 과정에서 환호의 일부라는 것이 밝혀졌다. 당시 조사에서 확인된 환호의 크기는 길이 78m, 폭 3m-3.5m, 깊이 0.5m-1.5m 정도 이고 상부에 놓였던 대형 할석들이 환호 내부로 유입된 상태였다. 단면 U자형으로 내부에는 흑갈색 부식토가 퇴적되고 바닥과 퇴적토 속에서 적갈색 무문토기 편들이 수습되었다. 이 토기 편들을 참고하여 조사자는 청동기시대 후기후반에 축조된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환호의 동쪽부분에 해당하는 곳을 부분 조사한 결과에 지나지 않아 정확한 규모와 형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비교적 규모가 큰 것으로 판단되며 창원 남산을 비롯해서 남해읍 봉황산⁴⁵⁾ 등 청동기시대 후기에서 철기시대 전기에 걸쳐서 취락유적 주변에서 환호가 나타나고 있다.⁴⁶⁾

Ⅲ. 청동기시대 전말과 고자미동국 태동

우리나라 청동기시대 편년은 주로 무문토기를 중심으로 조기, 전기, 중기, 후기 등 4분법이나⁴⁷⁾ 전기, 중기, 후기의 3분법을 자주 이용하고 있다.⁴⁸⁾ 조기는

⁴³⁾ 金廷鶴 『韓國の考古學』河出書房新社. 1972. pp.100-103.

⁴⁴⁾ 경상문화재연구원 「고성읍울대리산업단지조성부지내문화재발굴조사약식보고서」약식보고서 206책. 2015. pp.23-24.

⁴⁵⁾ 부경문화연구원 「남해봉황산 나래숲 조성부지내유적발굴조사 지문화의자료」2015. p.5.

⁴⁶⁾ 裴德煥 「青銅器時代 環壕聚落의 展開樣相」 『石堂論叢』제30집. 동아대학교석당학술원. 2007. pp.113-156.

⁴⁷⁾ 安在皓 「青銅器時代聚落研究」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돌대문토기(미사리형토기), 전기는 이중구연에 단사선문, 구순각목, 공렬문토기(가락식, 혼암리식, 역삼동식), 중기는 무문, 공렬토기(송국리식토기) 후기는 점토대구연토기로 구분하는 것이 4분법이다.⁴⁸⁾ 필자는 평소 3분법이 현재의 단계로서는 용이하다고 판단하여 전, 중, 후기로 각각 구분하고 대신 점토대구연토기는 철기시대로 편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송국리식토기는 후기로 편년하되 그 하한을 기원전 4세기 전반대로 예상한다.

지금까지 고성지역에서 확인된 청동기시대 주거지, 지석묘, 석관묘, 마제석검, 환호 등의 유구와 유물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서 삼한시대 고자미동국 태동기의 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고성지역 청동기시대 주거지이다. 주거지는 상리면 무선리와 거류면 신용리, 고성을 울대리유적에서 발굴조사 되었다. 그러나 울대리유적의 경우 보고서 미간행으로 여기서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 다만 조사 자료에 의하면 내부 중앙에 타원형 수혈과 주혈을 가진 평면 방형과 원형의 송국리형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금까지 송국리형 주거지의 경우 평면 원형보다 방형이 선행하는 것으로 편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조사지는 시기적인 차이는 없다고 소개하고 있다. 앞에서 구체적으로 소개된 무선리와 신용리 양 유적에서 확인된 주거지의 공통점은 평면 원형의 수혈주거지이며 내부에 주혈과 타원형 수혈을 갖는 4주식 또는 무주식의 소위 송국리형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내부에서 수습된 유물은 무문토기와 마제석기이다. 상리면 무선리 1호 출토 옹형 무문토기의 경우 구연이나 구순부에 공열이나 새김문이 없는 조질의 무문이라는 특징을 감안하면 후기 가운데도 비교적 늦은 시기로 편년되는 것임은 시사하고 있다. 즉 전기의 새김돌대문토기, 중기의 이중구연에 새김문, 공렬문토기, 후기의 단순공렬문, 점렬문, 무문의 특징을 참고하면 무선리의 무문 옹형토기는 가장 늦은 단계로 편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호 주거지에서 수습된 삼각형석도는 반월형석도가 변형된 것으로서 비교적 늦은 신식으로 편년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리 무선리의 송국리형 주거지는 시기적으로 청동기시대 후기후반으로도 편년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예를 들면 송국리형은 아니지만 강원도 고성 송현리⁵⁰⁾, 초도리⁵¹⁾ 강릉 방동리⁵²⁾ 울주입암리유적⁵³⁾에서는 수혈주거지 또는 수혈 내부

48) 宋滿榮 「韓半島 中部地域聚落的 發展과 政治體의 形成」 송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49) 朴榮九 「東海岸地域 青銅器時代 聚落 研究」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50) 江原文化財研究所 『高城松峴里遺蹟』 2007,

51) 江原文化財研究所 『高城草島里遺蹟』 2007 同 『高城草島里II, 花浦里遺蹟』 2010.,

52) 江原文化財研究所 『江陵芳洞里遺蹟』 2007,

53)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울주입암리유적』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학술연구총서 제79

에서 원형점토대구연토기와 함께 유구석부나 석착이 출토되었다. 삼각형석도나 유구석부, 삼각형석촉, 석착, 검파두식 등의 마제석기는 비교적 늦은 시기로 편년 되는 것으로서 원형점토대토기, 한국식동검 등과 함께 출토되는 경우도 있어서 삼한시대와 과도기적인 성격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강원도 고성 송현리 C취락 11호는 평면 방형의 송국리형으로 내부에서 원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되는 과도기적인 성격을 나타내고 있어 전기한 울대리유적에서 방형이 원형과 동일시 기라고 추정하는 조사자 의견도 수긍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경남진주 내촌리 유적에서는 삼한시대 후기에 해당하는 40여기의 평면 원형의 수혈주거지가 조사되었다.⁵⁴⁾ 그 중 29호만 청동기시대 송국리형이고 나머지는 삼한시대의 것인데 29호 내부에서 무문토기편과 함께 석착이 출토되어 석착이 비교적 늦은 시기의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⁵⁵⁾ 또 인접한 28호는 삼한시대 주거지인데,⁵⁶⁾ 회청색계통 토기편들과 함께 사천 늑도⁵⁷⁾와 방지리유적⁵⁸⁾에서 삼각형점토대토기 또는 그 다음단계로 분류되는 지두문을 가진 이중구연토기가 출토되어 송국리형 주거지와 무문토기의 과도기적 변화과정을 엿 볼 수 있어 주목된다. 이런 현상은 삼각형점토대구연토기가 출토되는 고성읍 성내리유적⁵⁹⁾과 지두문이 새겨진 이중구연토기가 출토된 송학리유적⁶⁰⁾들과도 연계되는 것이다. 따라서 고성지역의 송국리형 주거지 가운데도 일부는 고자미동국 태동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원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되는 방형주거지⁶¹⁾와는 이질성을 가진 것은 분명하다 할 수 있다. 또 고성읍 울대리유적에서 확인된 주거지 가운데는 보통 전기에서 중기로 편년하는 장방형 수혈주거지 일부가 나타나서 고성지역에서 청동기시대의 시작이 소위 송국리형 주거지 이전단계라는 것도 짐작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고성에서 아직까지 원형점토대토기를 동반하는 방형 또는 원형의 주거지가 아직까지 미발견이라는 사실은 고자미동국 초기에 일정기간 공백기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향후 조사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집. 2015. 148-170쪽.

54) 沈奉謹 『晉州內村里遺蹟』 동아대학교 박물관. 2007,

55) 沈奉謹 『晉州內村里遺蹟』 동아대학교 박물관. 2007, pp.119-122.

56) 沈奉謹 『晉州內村里遺蹟』 동아대학교 박물관. 2007, pp.114-118.

57) 沈奉謹 『泗川勒島C』 동아대학교 박물관. 2005, 30-33쪽.

58)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泗川芳芝里遺蹟 I. II. III.』 2005, pp.771-786.

59) 沈奉謹 『固城邑城址』 동아대학교박물관. 2006. 55-75쪽.

60) 한계문화재연구원 『固城松鶴里309-1番地遺蹟』 학술조사보고서 제16책. 2012. pp.17- 24.

61) 원형점토대토기 사용기의 전형적인 주거지는 사천늑도나 방지리유적 그리고 강원도 송현리유적의 사례와 같이 평면 방형으로 판단되며 곧 이어 원형으로 바뀌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부산대학교박물관 『勒島住居址』1989,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泗川芳芝里遺蹟 I. II. III.』 2005, 江原文化財研究所 『高城松峴里遺蹟』 2007,

다음은 지식묘이다. 앞서서도 언급한 것처럼 고성에는 전역에 걸쳐 지식묘가 분포하고 있다. 내륙산간지대의 협곡, 해안평야와 구릉 등 5-7기가 군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분포지형을 감안하면 삼본애삼(三本愛三)의 일본 구주지방 해수면 변동곡선과 같이 청동기시대 해수면은 지금과 크게 다를 바 없었을 것이 예상되며,⁶²⁾ 기후도 마찬가지로 생각된다. 현재 고성평야가 벼농사를 중시하는 곡창지대인 것을 감안하면 청동기시대도 마찬가지로 재지주민들은 농경이 중심산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형 상석을 이용한 지식묘의 축조는 사회적으로 계층관계가 지역에 따라 어느 정도 실행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여기서 꼭 계층관계를 논의한다면 지식묘, 석관묘, 옹관묘, 목관묘, 토광묘 등의 개별적 피장자 사이에도 일정한 계층이 예상되지만 아예 분묘 자체가 없는 경우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고성읍 울대리에 위치하는 지식묘의 경우 인접해서 당시의 환호유구를 비롯한 수혈식 주거지, 석관묘, 지식묘 유구 등 문헌상에 나타나는 삼한시대 읍락의 소별읍(小別邑)이나 소도(蘇塗)와 같은 공간의 느낌을 주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 그리고 거류면 신용리유적이거나 고성읍 울대리유적에서 확인된 유구의 구조는 기반석과 개석식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되어 시기적으로는 청동기시대 중기에서 후기에 걸쳐 주로 축조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신용리유적과 울대리유적에서 출토된 마제석검과 석촉의 특징을 비롯해서 일본 야요이시대 구주지방 지식묘와도 형태나 규모, 사용시기 등이 상통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용리나 울대리지석묘가 송국리형 주거지 주변에서 조사된 것도 축조시기에 참고 되는 부분이다. 이런 사실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남부지방에 분포하는 개석식이나 기반식 지식묘는 주로 송국리형 주거지 단계에서 크게 유행하다가 함께 소멸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석관묘이다. 마암면 두호리, 회화면 봉동리, 거류면 신용리, 고성읍 울대리, 교사리유적에서 각각 발견되었다. 신용리와 울대리 일부 유구를 제외하면 대부분 판석으로 조립한 상형으로 동쪽 단벽 근처에 별도의 유구를 설치하고 그 속에 채문의 호형토기를 부장한 것이 특징이다. 이 시기 채문의 호형토기는 고성 지역 외에 사천, 밀양, 진해지역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이곳처럼 집중하는 것은 드문 예이다. 그리고 남강유역 지식묘 하부묘실에서 홍도가 빈번하게 출토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묘제 차이를 비롯해서 지역성, 시기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전기한 지식묘도 마찬가지로 판석으로 조립한 상형석관묘의 기원을 중국 동북지방에 둔다면 그 전과과정에서 고조선식동검이나 양익형 동촉

62) 三本愛三 「鷹島海底遺蹟の自然科學的調査」 『鷹島海底遺蹟Ⅱ』1994. 75-98쪽.

과 같은 청동기의 유입도 가능 할 것이 예상되지만 이런 현상이 석관묘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는다. 지식묘 하부묘실이기는 하지만 창원진동리⁶³⁾와 덕산리,⁶⁴⁾ 거제이주동⁶⁵⁾, 김해무계리유적⁶⁶⁾ 등 남부지방 분묘유구에서 확인된 고조선식동검과 동축은 모두 할석으로 축조한 석곽형 묘실이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지역성보다 시기성이 중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즉 청동기 입수나 생산단계보다 상형석관묘가 먼저 축조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최소한 고성의 경우 판석으로 조립한 것이 할석 축조의 것보다 선행하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다만 삼한시대의 하일면 송천리 석관묘가 모두 판석으로 조립한 것을 감안하면 장기간에 걸쳐 그 전통이 전세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채문의 호형토기와 판석조립의 상형석관묘의 조합이 청동기시대 전기 고성지역 석관묘의 특징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최근 조사된 진해 마천동⁶⁷⁾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목관묘에서도 채문토기와 함께 석기, 토기 등 다양한 청동기시대 전기 유물이 출토되어 고성지역 석관묘 시기성 확인에 참고 되고 있다. 따라서 신용리를 제외한 채문토기가 출토된 두호리와 교사리, 봉동리 석관묘는 청동기시대 전기로 편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성지역에서는 가장 이른 시기의 유적으로 평가된다.

다음 마제석검과 석촉이다. 석검은 거류면 신용리, 고성읍 울대리에서는 지식묘 하부 묘실에서 출토되고 대가면 금산리, 회화면 봉동리의 것은 신고유물이다. 석검은 유병식이며 IIIb 또는 IVa단계로 편년 가능한 점판암제이다. 봉동리 신고품의 경우 손잡이 부분에 얇은 홈이 있고 검신이 장기간 사용된 느낌을 주는 것이다. 신용리와 울대리에서 출토된 것은 지식묘 하부묘실에서 출토되어 상호연대 추정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 분명하다. 함께 출토된 유경식 석촉도 단면 능형 것으로 축신도 비교적 짧은 것이어서 동반 출토된 석검과 대차가 없는 특징의 것이다. 따라서 그 사용 시기도 필자 편년표 대로라면 IIIb단계정도인 기원전 6세기 이상을 오르지 않을 것이 예상된다.

마지막 청동기시대 환호이다. 환호는 제사를 지내는 신성한 장소나 마을 주변에 설치하여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시키는 경계나 성곽과 같은 기능으로 축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⁶⁸⁾ 청동기시대 전기에서 후기에 걸쳐 나타나며 주로 구

63) 沈奉謹 「慶南地方出土青銅遺物の 新例」 『釜山史學』4집, 1980, pp.161-175.

64) 李相吉 「韓國昌原德川里遺蹟發掘調查概報」 『古文化談叢』32, 1997, pp.237-256.

65) 沈奉謹 「巨濟鵝州洞支石墓出土青銅劍」 『韓國史와 考古學』2000, pp.167-174.

66) 金元龍 「金海茂溪里支石墓와 그 副葬品-青銅器를 搬出하는 新例-」 『東亞文化』1집, 동아문화연구소, 1963,

67)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鎭海馬川洞遺蹟』2011, pp.29-43, .

릉이나 아산 정상부 주위에 설치되지만 진주 대평리와 같이 평지 취락지 주위에도 설치된다. 경남지역에서는 창원남산유적⁶⁹⁾, 덕천리유적⁷⁰⁾을 비롯해서 남해 봉황산⁷¹⁾, 양산 다방동⁷²⁾, 평산리⁷³⁾, 사천 방지리⁷⁴⁾ 등 청동기시대 후기유적과 삼한시대 유적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대부분 청동기시대 송국리문화 단계에 유행하여 삼한시대로 이어지는 느낌을 주고 있다. 인접한 울산지역의 경우 김단리⁷⁵⁾, 명산리⁷⁶⁾, 송정동⁷⁷⁾ 등 청동기시대 취락유적과 교동리⁷⁸⁾, 달천리⁷⁹⁾와 같이 원점토대토기단계의 삼한시대 것도 확인되어 상호 연계성이 인정되고 있다. 일본은 야요이 문화 초기의 후쿠오카현(福岡縣) 이타쓰게(板付)유적⁸⁰⁾을 비롯해서 사가현(佐賀縣) 요시노가리(吉野ヶ里), 나가사끼현(長岐縣) 잇기(壹岐) 하루노쓰지(原の辻)유적 등 후기까지 유행하고 있다. 따라서 울대리유적에서 확인된 환호는 일본 야요이문화 환호와도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논의된 고성지역의 주거지, 지식묘, 석관묘, 마제석검, 환호, 마제석촉, 무문토기, 삼각형석도 등 청동기시대유구와 유물의 특징을 종합하고 인접지역과 대비해서 편년도로 나타낸 것이 그림 10이다. 이 그림을 참고하면 고성의 청동기시대는 B.C. 8세기에서 B.C 4세기 사이가 중심이 되는 문화내용이라 할 수 있고 가장 활발했던 때는 기원전 5세기 정도가 된다고 생각된다. 또한 당시 주민들은 지식묘 분포권과 같이 벼농사와 어로를 중심으로 고성읍을 비롯해서 각 면(面) 또는 리(里) 단위 지역까지 넓은 범위에서 생활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그들이 청동기시대를 마감하고 곧 삼국지에 나타나는 고자미동국으로 발

69) 裵德煥 「青銅器時代 環塚聚落的 展開様相」 『石堂論叢』 제39집.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07. pp.113-156.

69) 창원대학교 박물관 「창원남산동유적현지설명회자료」,1997.

70) 李相吉 「韓國昌原德川里遺蹟發掘調查概報」 『古文化談叢』32. 1997, pp.237-256.

71) 부경문화연구원 「남해봉황산 나래숲 조성부지내 유적발굴조사 자문회의자료」,2015. 5쪽에 원형점토대토기가 수습되는 구상유구로 설명하고 있으나 규모나 형태로 보아 환호유구로 추정된다.

72) 尹武炳 외 「梁山多芳里貝塚發掘調查報告」 『淸堂洞』국립중앙박물관. 1994.

73) 沈奉謹 『梁山平山里遺蹟』 동아대학교 박물관. 1998, 145-149.

74)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泗川芳芝里遺蹟 I. II. III.』 2005, pp.231-238.

75) 釜山大學校博物館 『蔚山檢丹里마을 遺蹟』, 1995, 李秀鴻 『青銅器時代 檢丹里類型的 研究』 含春苑 2015, pp.156-158.

76) 蔚山文化財研究院 『蔚山明山里遺蹟』, 2011, 朴榮九 「東海岸地域 青銅器時代 聚落 研究」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pp.155-157.

77) 朴榮九 「東海岸地域 青銅器時代 聚落 研究」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pp.156-157.

78) 蔚山文化財研究院 『蔚山校洞里192-37遺蹟』, 2009,

79) 蔚山文化財研究院 『蔚山達川遺蹟 第1次發掘調查』, 2008, 同 『蔚山達川遺蹟 第3次發掘調查』, 2010,

80) 沈奉謹 『韓國에서 본 日本彌生文化的 展開』 학연문화사 1999. p.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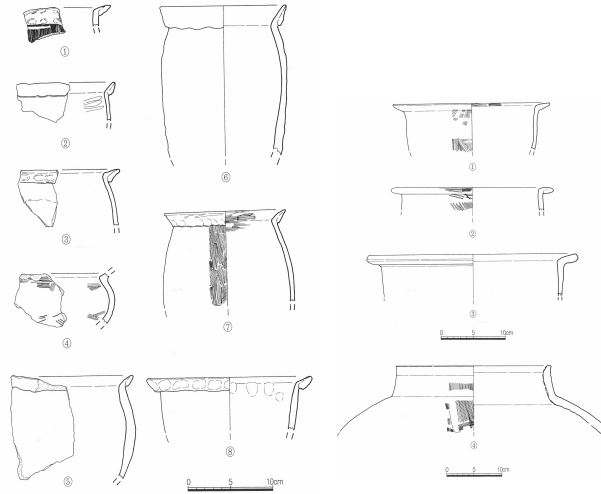


그림 11. 성내리 III지구 1호 수혈유구 출토유물

원형점토대토기, 한국식동검, 철기 등 이질적 문화의 출현에 대한 해석이다. 외지인 또는 선진문화 유입에 따른 문화충격의 대비책이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자연환경의 변화이다. 청동기시대에 보이지 않던 패총유적이 삼한시대에는 고성을 비롯해서 부산, 김해, 양산, 진해, 거제, 사천, 남해 등 해안 구릉지에서 발견되는 점이다. 이는 곧 삼한시대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이 상당한 수준에 달했던 것을 짐작케 하며 당시 해수면 상승은 청동기시대와는 판이하게 다른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⁸⁷⁾ 따라서 고자미동국 태동기 주민들은 농경지 상실과 함께 주거지 이동 등 생활 터전을 잃고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할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그 결과가 고성읍 동외동 패총과 성내리유적에서 발견된 중국, 일본 등 외국과 관련되는 유물이며 고자미동국 전성기의 단상이라고 이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갑작스런 문화충격과 자연환경의 변화가 오늘날 삼한시대 초기 흔적 확인을 어렵게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양산 평산리, 다방리, 진주 내촌리, 평거동, 거창 임블리유적 등 삼한시대 후기 중요유적들이 내륙지역에 넓게 분포하는 현상도 자연환경과 더불어 검토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87) 三本愛三 『鷹島海底遺蹟の自然科學的な調査』 『鷹島海底遺蹟Ⅱ』1994. pp.75-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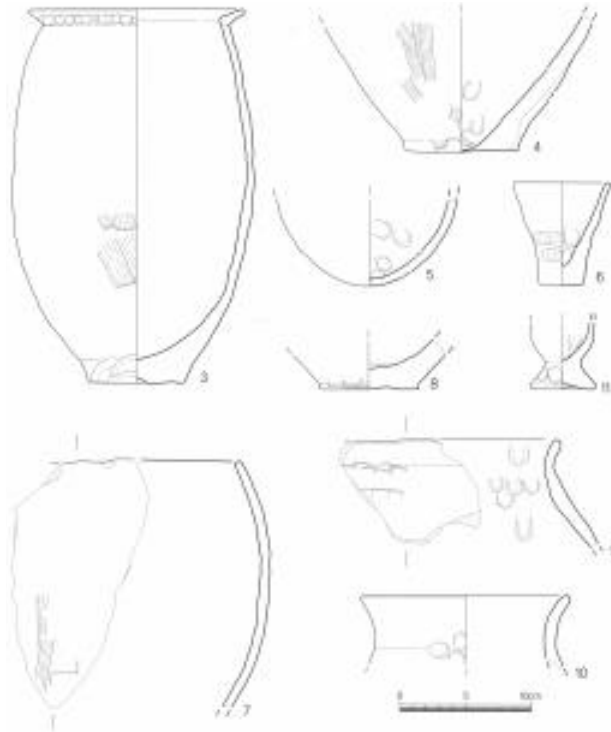


그림 12. 송학리 수혈 1호 출토유물 및 수습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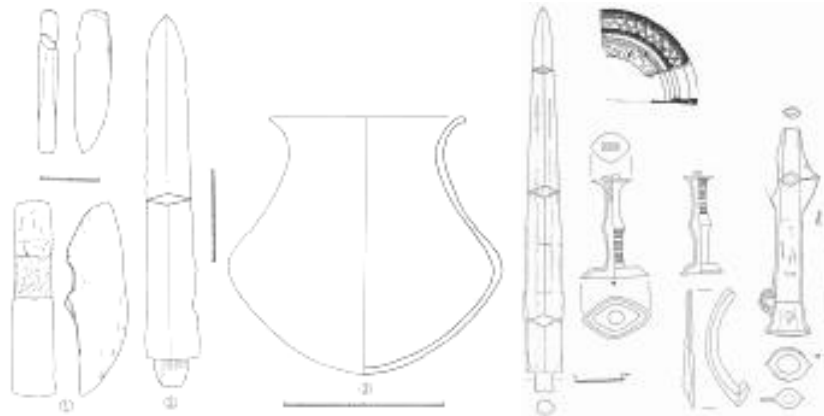


그림 13. 송천리 술섬 석관묘 출토 유물
(①유구석부 ②철검 ③회백색연질주머니호)

그림 14. 석지리 동검과
동외동 출토 청동기

IV. 끝맺는 말

삼국지에 등재된 고자미동국의 영역이 지금의 고성에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소가야영역과 같이 사천, 진주, 하동, 산청, 함양 등 서부 경남일대를 포함한 것인지는 자세하지 않다. 다만 삼한시대 전기로 갈수록 그 범위가 좁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예를 들면 삼국유사 포상팔국 기사에 고자국(고성), 사물국(사천) 등의 분포와 명칭에서 이를 짐작케 한다. 특히 사천의 늑도와 방지리유적은 주거지, 환호, 분묘 등의 유구와 거기서 출토된 토기, 청동기, 철기 등의 다양한 유물은 삼한시대 전기 문화내용 파악은 물론 고자미동국 이해에도 매우 도움이 되는 유적으로 평가된다.

한편 고성은 삼한시대 고자미동국이 위치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고자미동국 태동기 문화는 고성지역 청동기시대 후기와 삼한시대 초기의 고고학 자료를 통해서만 그 확인이 가능하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기원전 300년경 전후로 추정된다. 청동기시대는 송국리형 주거지 단계의 주거지, 지식묘, 환호, 마제석기 등이 주목되며 무선리와 울대리 주거지와 환호, 함께 출토된 무문토기와 삼각형 석도가 대표적인 후기후반 자료로 평가된다. 석관묘는 고성에서는 가장 이른 시기에 사용된 묘제 중의 하나로서 선행하는 문화요소이고 마제석검은 청동기시대 해석에 도움이 되는 자료이지만 전세기거나 재생해서 사용하는 경우 절대연대 추정에 장애가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삼한시대 초창기를 대표하는 유물은 한국식동검과 다뉴경, 원형점토대구연토기, 흑색장경호 등이다. 고성에서는 고성읍 성내리와 송학리 수혈에서 삼각형점토대구연토기와 함께 일본에서 중기로 편년하는 야요이식토기기가 출토되어 원형점토대구연토기 보다는 한 단계 늦은 시기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고성에서는 고자미동국 초창기에 해당하는 원형점토대구연토기가 출토되는 유적이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이 하나의 극복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의 자료 증가를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 청동기시대 무선리의 송국리 단계와 삼한시대 성내리 삼각형점토대구연토기 사이에는 원형점토대구연토기 존속기간 정도의 일정 공백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접한 사천방지리에서는 원형점토대구연토기 단계, 원형점토대와 삼각형점토대구연토기 중복지 단계 그리고 삼각형점토대구연토기 단계로 시기 구분이 가능한 복합생활유적이 최근 발견되었다⁸²⁾. 고자미동국의 태동기에도 방지리유적과 마찬가지로 단계를 거친 해당유적이 위치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심지도 청동기시대 울대리에서

82)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泗川芳芝里遺蹟 I. II. III.』 2005, pp.776-786.

삼한시대에는 성내리나 송학리가 있는 현재의 고성읍내로 옮긴 것으로 짐작된다. 하이면 석지리 출토 동검과 하이면 송천리 솔섬 석관묘와 철검, 무문토기, 회백색 연질 주머니호는 삼한시대 전기에도 외곽지역에 청동기시대에 이어서 재지주민들이 정착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자료이고 고성읍 동외동패총에서 수습된 청동기와 토기 등 국제성을 가진 유물은 신문화 충격에 대한 흡수나 기온 변화에 따른 재지주민들의 대응책을 반영한 결과물로 해석된다.

■ 투고일 2016년 1월 25일 | 심사완료일 2016년 2월 18일 | 게재확정일 2016년 2월 29일 ■

참고문헌

1. 사료

三國志
三國史記
三國遺事

2. 국내 자료

江原文化財研究所 『江陵芳洞里遺蹟』 2007,
江原文化財研究所 『高城松峴里遺蹟』 2007,
江原文化財研究所 『高城草島里Ⅱ, 花浦里遺蹟』 2010,
江原文化財研究所 『高城草島里遺蹟』 2007,
慶南考古學研究所 『固城頭湖里遺蹟』 2000.
慶南文化財研究院 『固城武仙里遺蹟』學術調查研究叢書 第39輯. 2005.
慶南文化財研究院 『固城校社里遺蹟』學術調查研究叢書 第21輯. 2003.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泗川芳芝里遺蹟 I.Ⅱ.Ⅲ.』 2005,
慶尙南道·東亞大學校博物館 『南江流域文化遺蹟發掘圖錄』1999.
경상문화재연구원 「고성울대일반산업단지조성부지내문화재발굴조사약식보고서」
약식보고서 206책. 2015.
固城郡·東亞大學校博物館 『文化遺蹟分布地圖 -固城郡-』2004.
國立中央博物館 『松菊里Ⅲ』國立博物館古蹟調查報告 第19冊. 1978.
國立中央博物館 『韓國支石墓研究』國立中央博物館遺蹟調查報告 第6
冊. 1967.
金東鎬 『固城松川里솔섬石棺墓』동아대학교박물관. 1977.
金永培 安承周 「扶餘松菊里遼寧式銅劍出土石棺墓」 『百濟文化』7,8합집.
1975.
金廷鶴 『韓國の考古學』河出書房新社. 1972.
金東鎬 『固城東外洞貝塚』동아대학교박물관. 1984.
金元龍 「金海茂溪里支石墓와 그 副葬品-青銅器를 搬出하는 新例-」 『東
亞文化』1집. 동아문화연구소. 1963,
東西文物研究院 『固城新龍里遺蹟』調查研究報告書 第18冊. 2009.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鎭海馬川洞遺蹟』2011.

- 朴榮九 「東海岸地域 青銅器時代 聚落 研究」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裴德煥 「青銅器時代 環壕聚落的 展開樣相」『石堂論叢』제39집.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07.
- 裴德煥 『嶺南地域青銅器時代住居址研究』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부경문화연구원 「고성노벨컨트리클럽조성사업부지내문화유적발굴조사결과약보」고서 2014.
- 부경문화연구원 「남해봉황산 나래숲 조성부지내유적발굴조사 자문회의자료」 2015.
- 釜山大學校博物館 『蔚山檢丹里마을 遺蹟.』 1995,
- 宋滿榮 「韓半島 中部地域聚落的 發展과 政治體의 形成」승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沈奉謹 『韓國에서 본 日本彌生文化의 展開』학연문화사 1999.
- 沈奉謹 「巨濟鵝州洞支石墓出土青銅鏃」『韓國史와 考古學』2000,
- 沈奉謹 「慶南地方出土青銅遺物의 新例」『釜山史學』4집. 1980,
- 沈奉謹 「固城東外洞貝塚出土彌生系遺物」『石堂論叢』제27집.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1998.
- 沈奉謹 「東亞大學校博物館所藏青銅遺物新例」『古文化』제20집. 한국대학박물관협회. 1982.
- 沈奉謹 『固城邑城址』동아대학교박물관. 2006.
- 沈奉謹 『金海府院洞遺蹟』동아대학교 박물관. 1981.
- 沈奉謹 『泗川勒島C』동아대학교 박물관. 2005,
- 沈奉謹 『梁山平山里遺蹟』동아대학교 박물관. 1998,
- 安在皓 「青銅器時代聚落研究」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 蔚山文化財研究院 『蔚山校洞里192-37遺蹟』 2009,
- 蔚山文化財研究院 『蔚山達川遺蹟 第1次發掘調査』 2008,
- 울산문화재연구원 『蔚山達川遺蹟 第3次發掘調査』 2010,
- 蔚山文化財研究院 『蔚山明山里遺蹟』 2011,
-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울주입암리유적』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학술연구총서 제79집. 2015.
- 尹武炳 의 「梁山多芳里貝塚發掘調査報告」『淸堂洞』국립중앙박물관. 1994.
- 李丙燾 「三韓問題의 新考察(二)」『震檀學報』3. 1935.

李相吉 「韓國昌原德川里遺蹟發掘調查概報」 『古文化談叢』32. 1997,
李秀鴻 『青銅器時代 檢丹里類型的 研究』 含春苑 2015.
李殷昌 「大田市槐亭洞出土一括遺物調查略報」 『考古美術』8-9. 1967.
李賢惠 『三韓社會形成過程研究』一潮閣, 1984.
任孝宰 『欣巖里住居址4』서울대학교박물관. 1978.
千寬宇 「三韓의 成立過程」 『史學研究』26. 1976.
한계례문화재연구원 『固城松鶴里309-1番地遺蹟』학술조사보고서 제16책.
2012.

3. 국외자료

有光教一 『朝鮮磨製石劍の研究』京都大學 文學部 考古學 叢書 第2輯.
1959.
三上次男 『滿鮮原始墳墓の研究』吉川弘文館. 東京, 1961.
許玉林 『遼東半島石棚』1994.
三本愛三 「鷹島海底遺蹟の自然科學的な調査」 『鷹島海底遺蹟Ⅱ』1994.

Abstract

Bronze Age culture and local Goseong-gun,
Gyeongsangnam-do, Korea
(古資彌凍國) (胎動)

Sim, Bong-Geun

Goseong is the center of Gojamidongguk during the Samhan Period and its culture during the quickening period can be identified only through archaeological materials during the late Bronze Age and early Samhan Period in Goseong Area. And the quickening period is estimated to be around 300 BC in time. In the Bronze Age Culture, polished stone tools, dolmens, moat, residence of the Songgok-ri type residence stage are highlighted and Museon-ri and residence, moat, patternless earthenware and triangular stone blade excavated together are evaluated as late materials. As one of types of tombs used in the earliest time in Goseong, a stone-coffin tomb is a preceding cultural element and a stone dagger is the material to help interpret the Bronze Age but its disadvantage is to present an obstacle to estimating absolute age when used through recycling or during Jeonse Period. As everyone knows, artifacts that represent the early Samhan Period include Korean type dagger and geometric-design bronze mirror, round clay stripe double-rimmed pottery, long-necked pottery etc. In Goseong, Yayoi-style pottery chronicled as the first half of mid-term in Japan with triangulated clay-stripe pottery in Goseong-eup Seongnae-ri and Songhak-ri pit, indicating those are one stage later than round clay-stripe pottery. Therefore, no remains where round clay-stripe pottery corresponding to the early days of Gojamidongguk is excavated in Goseong have been identified so far and it may be one of the challenges to overcome. There is no choice but to wait for future

growth of data but it can be seen that there is a certain gap as long as round clay-stripe pottery duration between Songguk-ri stage of Bronze Age Museon-ri and Seongnae-ri triangulated clay-stripe double-rimmed pottery during the Samhan Period. In adjacent Sacheon Bangjiri, complex life remains were discovered recently and periods can be classified into round clay-stripe pottery stage, round clay-stripe and triangulated clay-stripe pottery duplicate stage and triangulated clay-stripe double-rimmed pottery stage. The remains passing through the same stage as Bangjiri ruins are determined to be located also in the quickening period of Gojamidongguk. Also, the center is guessed to have been moved from Yuldae-ri during the Bronze Age to current Goseong-eup where there is Songhak-ri or Seongnae-ri during the Samhan Period. Bronze daggers excavated in Hai-myeon Seokji-ri and light gray soft pocket-shaped jars, patternless earthenware, iron swords and stone coffin tombs in Hail-myeon Songcheon-ri Solseom are the materials telling that local residents also settled in rural areas in the early Samhan Period following the Bronze Age. And remains with the internationality such as bronzeware and earthenware collected in Goseong-eup Dongoe-dong shell mound are interpreted as the result reflecting the response of local residents according to temperature change or absorption of the new culture shock.

Key words: Gojamidongguk, round clay stripe pottery, triangulated clay-stripe pottery, Yayoi pottery, pocket-shaped jar

